

退溪의 詩歌文學論과 文藝認識論의 爭點

李 鍾 虎*

1

퇴계문학에 대한 논의는 1930년대 근대 분과학문 체계가 성립된 뒤 오늘에 이르기까지 줄곧 이어져 왔다. 이 글은 그 동안 축적되어온 연구성과를 검토하여 향후 연구방향을 전망해 보기 위한 시험적 노력의 일단이다. 아마도 21세기를 목전에 두고 있기에 새로운 출발을 다짐하기 위한 자기반성이란 측면에서 일정한 의의가 있을 것으로 본다. 일찍이 10여년 전에도 이 같은 시도가 한 차례 있었던 것으로 안다¹⁾ 그러나 10년이란 기간에 이루어진 연구성과가 적지 않기도 하거니와 한 차례의 점검으로 자기반성을 다 했다 할 수 없으므로, 재론하는 일이 번거로움을 더하는 것이라는 혐의를 버리기로 했다. 다만 논의의 대상을 시가문학과 문예인식이라는 두 가지 범주에 속하는 연구물을 중심으로 하고 논의의 방식을 쟁점사항 위주로 전개하기로 하였다. 쟁점이 선명하게 부각되는 경우도 있지만 그렇지 않은 경우도 있다. 다른 이의 그림을 적시하고 자기의 옳음을 주장한 것이 있는가 하면 특정연구를 지칭하지 않았으나 논지가 기존의 주장들과 다른 기미를 은근히 풍기는 것도 있다. 이 글에서는 동일한 문제에 대해 존재하는 모든 견해들을 논의의 대상으로 삼기로 한다.

본론에 앞서 현재까지 진행된 퇴계학에 관한 모든 논의들 속에서 문학분야 연구가 어떠한 위상을 보이고 있으며 그 실상이 어떠한지를 알아 본다. 이어서 시가문학에 대한 논의와 문예인식에 대한 논의에서 드러난 쟁점을 살펴 본다. 여기서 詩歌文學이라 한 것은 국문시가와 한시를 아울러 칭하고 文藝認識이란 문예와 관련한 이론적 진술을 포괄적으로 가리킨다²⁾ 끝으로 현 단계에서 요구되는 퇴계문학을 보는 자세와 그 연구태도에 대한 필자의 견해를 밝히는 것으로 마무리하고자 한다.

* 안동대학교 한문학과 교수

1) 「퇴계문학 연구의 성과와 과제」 이동환, 『한국의 철학』 제18호, 경북대 퇴계연구소
2) 퇴계도 “工文藝, 非儒也”(『言行錄』 권4, ‘論科擧之弊’)라 하여 ‘文藝’를 사용한 바 있다

2

퇴계의 학술에 대한 본격적인 논의는 1970년 거행된 '퇴계선생서거사백주기 기념사업'이 계기가 되어 대구의 경북대 퇴계연구소(1972)와 서울의 퇴계학연구원(1973)이 창립되고부터 시작되었다. 20세기에 퇴계학을 부흥시킨 이 두 기관은 그들의 연구성과를 間斷없이 『퇴계학연구』(『한국의 철학』)와 『퇴계학보』에 보고하여 오늘에 이르고 있다. 70년대 이전에도 퇴계에 대한 논의가 없지는 않았으나, 하나의 '學'으로 정립하여 집중적으로 探討된 바는 없었다. 70년대 전반까지 기간은 넉넉하지 않았지만 그런대로 퇴계학의 주요문제들에 대한 研討가 이루어졌다. 이어서 퇴계학연구원이 주최한 퇴계학국제학술회의(1회, 1976)는 국제적 관심을 촉발시키고 연구시각을 확대하는데 큰 기여를 하였다. 80년대는 안동대학교와 단국대학교에 퇴계학연구소가 창설되는 등 퇴계학이 또 한 차례 도약하는 추세를 보여 주었다. 금세기에 발표된 퇴계학 관련논저가 일천 수백 여편에 달하는 것으로 조사되고 있다³⁾ 아마도 해방이후 현재까지 역사적 인물에 대한 학적 관심이 퇴계의 경우와 같이 집중적으로 있어온 예는 드물 듯하다.

이 글에서는 퇴계학 연구의 중심기관인 퇴계학연구원과 국제퇴계학회가 주관하거나 후원한 국제학술회의와 『퇴계학보』를 통해 발표된 퇴계학관련 논문과 필자가 인터넷을 통하여 거칠게 조사한 석박사 학위를 중심으로 퇴계문학 연구의 현황을 알아 보기로 한다.

최근에 이루어진 보고에 따르면⁴⁾ 1996년까지 『퇴계학보』에 발표된 논문은 총 643편으로 집계되어 있다. 그 가운데에서 철학분야가 319편(52.5%)으로 압도적이고, 그 다음이 문학분야로 61편(9.8%), 교육분야가 20편(3.2%) 순으로 나와 있다. 이는 퇴계학의 본령이 철학분야에 있음을 반영한 것이나, 퇴계의 저술에 비추어 볼 때 문학분야가 다소 소홀히 다루어진 감이 없지 않다. 또한 문학분야 61편중 번역 14편이 포함되어 있어 이를 제외하면 논문형식의 글은 47편이 되는 셈이다. 47편중 詩歌연구가 29편으로 가장 많고 그 다음으로 산문연구가 10편이 있다. 이 역시 퇴계문학의 본령은 시가라는 사실을 다시 확인시켜준다. 그 중에서 6회(78년 12월~80년 3월)에 걸쳐 번역연재된 바 있는 王甦(臺灣 淡江大學)의 「退溪詩學」은 퇴계 시가연구의 壓卷이라 할 것이다.

인터넷에 올라와 있는 국회도서관과 국립중앙도서관 사이트의 데이터베이스 목록을 검색한 결과를 통해서 퇴계를 단독으로 다루었거나 논제에 퇴계가 엮보이는 석·박사 논문제출 현황을 알아 본다. 대학원에서의 연구상황은 퇴계학 연구의 장

3) 『퇴계학연구논저목록』 단국대 퇴계학연구소 편, 『퇴계학연구』 제3집 부록, 1989

4) 『퇴계학연구의 현대화』 梁承武, 『퇴계학보』 제93집, 퇴계학연구원, 1997

래와 밀접히 연계되어 있기에 주의 깊은 검토가 필요하다. 기제출된 석박사 논문 중 데이터베이스 목록에서 빠진 것도 없지 않을 것이다. 그러나 학위논문은 성격상 주요도서관에 소장되는 관례로 볼 때, 그 수량은 그렇게 많지 않을 것이다.

퇴계학 관련 학위논문은 윤사순의 「퇴계의 이기론」(1964, 석사)을 필두도 하여 모두 119편(석사 101편, 박사 18편)이 제출된 것으로 집계된다. 시기별로 살펴 보면, 1964년~1970년이 4편, 1971년~1980년(75년 4편, 76년 3편, 77년~80년은 제출된 논문이 없음)이 7편, 1981~1990년이 45편, 1991년~1998년이 63편이 제출되었다. 1980년까지 제출된 논문은 그 후 10년간 쓰여진 것에 1/3도 채 되지 못하며, 1996년 한 해에 제출된 논문 편수(13편)보다도 적다. 이같은 수치는 퇴계학연구가 75년도를 전후로 활발해지기 시작하여 80년대를 거쳐 90년대에 들어서서 연구열이 날로 고조되어 갔음을 설명해준다. 조금 아쉬운 것은 교육대학원에 제출된 석사논문이 일반대학원의 그것보다 훨씬 많았다는 사실이다. 따라서 질적인 면에서 다소의 편차가 있다는 점을 인정해야 할 것이다. 전체논문 중 111편이 철학과 사상관련 논문(박사 15편)이고 문학관련 논문은 이종석의 「퇴계의 시문학연구」(1975, 석사)가 보고된 이래 모두 18편이 제출되어 전체에서 15%를 점유하고 있는데, 이는 『퇴계학보』의 9.8% 보다는 5% 정도 높은 수치를 보이고 있지만 여전히 부진을 면치 못하고 있다. 문학관련 18편은 한시연구 14편(박사 3편), 국문시가 3편, 비평 1편으로 이루어져 있어 한시연구가 대부분을 차지한다. 제출시기별로 보면, 75년 1편, 82년~88년이 5편, 90년~96년이 10편(박사 3편)으로 향후 문학관련 학위논문제출이 당분간 점증추세를 유지할 것으로 전망된다⁵⁾

위의 전망을 그대로 수용한다면 향후 퇴계 문학연구의 장래는 낙관해도 좋을 듯 싶다. 그러나 연구인력의 분포도나 연구의 완성도라는 측면에서 볼 때, 미래를 낙관적으로 전망하기에는 조금은 조심스럽다. 대학원에서 나온 학위논문은 학계의 연구성과나 연구방향에 크게 의존하는 경향이 짙다. 창발적인 논지를 펴내는 논문이 전혀 없는 것은 아니지만, 이전의 성과를 정리하거나 부연하는 양상이 주류를 이룬다. 이는 정해진 기한과 연구역량의 부족으로 논문구성에 급급하여自得보다는 依樣에 치우친 탓이다. 학위논문의 내용이 보다 알차게 엮여지기 위해서는 선학들의 심도있고 정밀한 연구성과가 계속 보고되어야 한다. 대학원생의 연구와 전

5) 단국대학교 퇴계학연구소가 조사한 「퇴계연구논저목록」에서 문학관련 논저를 뽑고 누락된 자료를 보충한 「퇴계문학연구논저목록」(『한국의 철학』 제18호 부록 경북대 퇴계연구소, 1990)을 검토해 보아도 퇴계학 연구의 전반적인 추세가 90년대로 접근하면서 한층 열기를 더해가고 있음을 실감할 수 있다. 동 목록에는 해방이후 40여년간(1949년~1989년) 퇴계문학을 소재로 하여 연구한 논문(학위논문 9편 포함)이나 번역, 단행본(일부 수록도 포함) 등 140편이 소개되어 있다. 이를 시기별로 살펴보면 49년~70년이 15편, 71년~80년이 49편, 81년~89년이 76편이다.

문학자의 연구가 자동차의 앞 뒤 바퀴와 같기 때문이다

3

현재까지 이루어진 문학분야 연구성과의 실상을 편의상 연구자 중심으로 개괄해 보기로 한다

최근의 연구물들에서 가장 빈도 높게 거론된 것은 역시 한시문학이다 퇴계의 한시는 도합 2127수에 달한다 만일 제목만 전하는 逸詩까지 합한다면 3558수에 이른다는 통계가 보고된 바 있다⁶⁾ 한시문학에 대한 전면적 고찰은 20년전 중국인 王甦 교수에 의해 이루어졌다⁷⁾ 왕소는 퇴계시의 예술적 맥락을 읽어내는 탁월한 수완을 보였을 뿐 아니라 운율에도 밝아 퇴계의 시적 역량을 증명해 내는데 성공하였다 퇴계가知音을 만난 격인데, 伯樂이 지나가고 나면 千里馬가 없다고 했던가? 필자의 얕은 식견으로 함부로 평할 수 없겠으나, 아직 그의 연구수준을 능가하는 국내 연구자들의 논저를 찾아 볼 수 없어 아쉽다 『퇴계시학』은 많은 사람에게 사랑을 받아 퇴계를 알고자 하는 이들의 필독서가 된 지 오래다 이에 『퇴계시학』에 수록되지 않았거나 수록되었더라도 간략히 다루었던 부분들에 한하여 살펴 보기로 한다⁸⁾

6) 「李退溪家書의 종합적 연구」(日文) 권오봉, 日本京都 中文出版社 1991

7) 「退溪詩學」, 王甦, 『퇴계학보』 1~6, 1978~1980 (『퇴계시학』 이장우 역, 퇴계학연구원, 1981) 「퇴계의 시학과 시교」(퇴계학보 19, 1978), 「退溪 초년의 몇 수의 칠언절구」(中文) (『중국문학보』 4, 단국대 중어중문학과, 1980), 「이퇴계의 영매시」(『퇴계학보』 제41집, 1984년), 「퇴계시의 풍격」(『퇴계학보』 42, 1984년), 「퇴계선생과 매화정신」(『퇴계학보』 43, 1984), 「퇴계의 心路歷程」(日文) (『퇴계학보』 52, 1986), 「퇴계의 문학관」(『퇴계학연구』 제1집, 단국대 퇴계학연구소, 1987) 등은 그의 專著인 『퇴계시학』에 수록된 내용에서 한 대목씩 발췌하여 약간의 부분적 손질을 가하여 발표된 것들이다 영매시를 소재로 한 글(「퇴계선생과 매화정신」, 「퇴계시의 풍격」, 「이퇴계의 영매시」)은 『퇴계시학』에서 진일보한 구성을 보여주면서, 文尾에서 중화민국(대만)의 國花인 매화와 연결지어 조국애를 고취하려는 의도를 드러내고 말았다

8) 왕 교수는 『퇴계시학』 結語에서 퇴계시의 특질을 두가지로 정리하였다 자연을 사랑함(愛自然)과 진리를 사랑함(愛眞理)이 그것이다 그리고 나서 自然-情-藝術境界-美, 眞理-性-聖賢境界-善으로 묶어 상호 연계작용을 설명했다 이같이 왕 교수의 논법은 매우 간명하다 이어서 왕 교수는 말한다 “퇴계가 예술적인 경계를 추구한 것은 山水詩와 詠物詩에 많이 표현되어 있는데 영물시 중에 梅花詩가 가장 많다 성현경계에 대한 추구는 흔히 理語詩에 표현되어 있는데, 이치를 추구하고서 실천에 옮길 수 있는가를 실험하여 참된 지식을 실제로 터득하도록 한다 퇴계가 추구한 예술경계와 성현경계는 갈라지는 것이 아니라 相輔·相成, 相得 益彰의 관계이다 시가 心學에도 절실히 필요하며 산수가 시를 짓는데도 도움이 되며 심성에도 적합하다는 것은 분명한 사실이다 그러나 만약 인생의 예술경계와 성현경계를 추구하려 한다면 시를利器로 삼지 않을 수 없다 이같은 이치를 이해한다면 퇴계가 詩學을 理學의 일부분으로 삼은 소이를 알 수 있게 된다” 왕 교수의 견해를 보면, 퇴계시의 관건은 산수시·매화시 理語詩에 달려 있다고 할 수 있다

먼저 왕 교수의 詠梅詩 분석태도를 알아 본다. 왕 교수는 퇴계의 詠梅詩에서 매화가 상징하는 인격화된 意象을 美人의 자태, 仙人의 風韻, 隱士의 倩標, 貞士의 志節로 나누어 분석하고, 이 네 가지 상징적 의미 속에서 純粹美와 純粹善이 표현되고 있으며, 이는 곧 퇴계의 心靈世界를 반영한 것이라 하였다. 퇴계 영매시의 의경으로 寫實性·體物性·感悟性·輔仁性·靈動性 등을⁹⁾ 들고, 궁극적으로는 매화의 옥설같은 倩眞함이 퇴계의 고결한 인격을 상징한다고 결론지었다¹⁰⁾ 의상과 의경, 인격을 일원적으로 파악하려는 자세가 두드러져 보인다.

왕 교수의 분석과 함께 국내에서는 홍우흠 교수의 연구가 주목을 끈다. 그는 『매화시첩』을 텍스트로 삼아 분석에 임했다. 퇴계의 매화시는 이전의 한중 매화시에서 직간접적으로 영향을 받았을 것으로 추정하고, 전대의 梅花觀에 대한 깊은 이해를 바탕으로 퇴계가 한중문학사에서 찾아볼 수 없는 독창적인 자신의 매화관을 확립하였다고 하였다. 홍 교수가 파악한 독창적인 퇴계의 매화관은 '本然之性'을 영원히 지켜나가고 있는 同志로서 매화를 인식한 데에 있다. 그리고 그 예로 '傷寒梅花'의 형상화를 들었다. 홍 교수는 "숭고한 철리를 암시하고 있는 매화가 寒風冷雪로 傷寒을 입어 本然之性(純善無惡한 眞)을 잃었을 때의 원통함을 주제로 한 시가 퇴계이전에는 보이지 아니한다"고 지적함으로써, 퇴계 매화시가 성취한 의경의 개성화를 특기하고 있다.¹¹⁾ 홍 교수의 연구는 앞서 이루어진 왕소의 영매시 연구에서 進一步하는 성과를 보여주었다. 전대 매화시에 대한 세밀한 照檢과 퇴계 매화시에 대한 심오한 愛情이 없이는 '상한매화'를 포착해 내기 쉽지 않았을 것이다. 이 점에서 앞으로 퇴계의 영물시 전반에 대한 새로운 검토가 이루어질 필요가 있다.

왕 교수는 또한 주자의 「武夷樞歌」를 차운한 퇴계의 「九曲樞歌」에도 관심을 보

9) 사실성은 사물을 미세한 부분까지 관찰하는 세심함인데, 이는 퇴계의 情趣활동으로 어린아이와 같은 마음의 자연스런 표현이고, '체물성'은 매화를 사랑하는 마음으로 자기 몸을 매화의 처지에 놓고 매화를 자기와 같이 보며 병들고 아픈 것을 서로 관련짓고 가련하게 여기고 사랑하는 마음 일체를 말하며, '감오성'은 매화시가 사람이 깊이 성찰해야 할 곳을 개발해주는 작용이며, '보인성'은 매화를 벗으로 삼아 그 바탕(仁)을 취하는 것이고, '영동성'은 객관적인 사물을 주관적인 상상을 통해 생명을 부여하고 靈性을 갖들게 하며 감정이 없는 것을 감정이 있게 하고 정체되어 있는 것을 생동하게 하며 감정과 풍경이 서로 융합되게 하고 사물과 내가 감정을 교류하게 되는 경지를 말한다. 고 했다.

10) 「이퇴계의 영매시」, 왕소, 『퇴계학보』, 제41집, 1984

11) 「梅花詩帖에 대한 연구」, 홍우흠, 『인문연구』 제4호, 영남대 인문과학연구소, 1981. 「이퇴계의 매화시」, (鄭錫胎, 고려대 석사논문, 1987)에서는 퇴계 매화시의 개성으로 문답형식을 취한 점을 강조하고 있는데, 문답형식이 퇴계와 심령상으로 일체화를 도모한 결과 진퇴문제로 갈등하는 과정에서 나온 것으로 파악한 바 있다. 이 밖에 매화시 연구로는 「퇴계의 시문학 연구」-매화시를 중심으로(李鍾錫, 고려대 석사논문, 1975), 「퇴계의 매화시 고찰」-이상주의의 형상(金泰膺, 『안동문화』 제6집, 안동대 안동문화연구소, 1985), 「퇴계의 매화시 연구」(李澤東, 서강대학교 석사논문, 1989), 「퇴계의 매화시에 대하여」, 정석대, 『퇴계학연구』 제5집, 단국대 퇴계학연구소, 1991) 등이 있다.

였다 그는 먼저 兩人的 작품을 비교·분석하여 네 가지 방면으로¹²⁾ 내용적 특색을 요약하였다 이어서 퇴계의 九曲權歌는 주자에게서 볼 수 없는 遊仙의 색채가 있다는 점에 초점을 맞추어 유선사상의 의미를 읽어내고자 했다 왕 교수는 퇴계가 주어진 현실에 대한 반항, 증오와 같은 정신적 고뇌를 씻어내기 위한 유일한 방법으로 遊仙을 택했기에 유선은 곧 자유의지의 표현이요 심리적 안정과 초탈의 추구였다고 본다 따라서 퇴계의 은거의지가 現實에 대한 소극적 견양이라면 유선사상은 理想에 대한 적극적인 집착일 것이라 했다¹³⁾

퇴계의 醉夢詩에 대한 왕 교수의 해석도 자못 이채를 띠고 있어 흥미롭다 그는 니체가 거론했던 '예술세계를 구성하는 두 가지 정신'으로서의 夢과 醉의 작용을 설명하고 나서¹⁴⁾, 퇴계는 철인인 동시에 시인이기에 퇴계시의 醉와 夢을 통하여 그 예술의 情思와 심령세계를 탐구하고자 한다고 했다 '醉의 豪情'에서 飲酒와 관련한 작품을 분석하여 퇴계는 藝術幽思와 酒醉情懷를 발휘한 아름다운 시를 지어 眞力彌滿하고 鳶飛魚躍하는 심령세계를 성공적으로 표현해 내었다고 보았다 '夢의 意境'에서는 夢과 관련된 다양한 시편 가운데서 감정과 시어가 진지한 記夢詩를 전기(50세 이전), 후기(60세 이후)로 나누어 분석했는데, 전기는 현실과 이상이 괴리되어 정신적으로 고민하던 시기이므로 遊仙色彩를 띠면서 現實을 超越하고 物外에 遊心하는 것이 많고, 후기에는 陶山으로 歸隱하여 심정이 한적해졌기에 遊觀之趣와 山林之樂하는 것이 많이 담겨있다고 여겼다 이어서 그는 퇴계의 醉夢詩를 평가하기를, "哲學人生 속에서 흘러나와 天人合一과 心物合一, 藝道合一의 경계를 잘 표현해 내었다"고¹⁵⁾ 평하였다 이처럼 생애 단계를 구분하여 그에 따른 사상의 변화추이를 파악하는 방식은 다른 국내 연구자들에 의해서도 여러 차례 시도된 바 있다 예컨대 현실과 이상이라는 상하구도를 설정하고 그 사이의 대립과 조화로 퇴계의 초만년의 작품을 설명해내려는 태도 역시 이제는 상투적인 접근방식으로 굳어진 듯한 느낌을 받는다

夢과 관련한 퇴계의 작품을 분석한 국내학자로는 권오봉 교수가 있다 권 교수는 왕 교수와는 체질을 달리하여 夢遊詩 자체의 문학성을 따지기 보다 몽유시를 통해 퇴계의 생활면모를 다각적으로 이해하려 했다 그는 몽유시 해석의 오류를 막기 위해 퇴계의 행적을 꼼꼼히 찾아서 비교하는 수고를 아끼지 않았다 작품분석을 통하여 권 교수는 퇴계의 夢遊詩와 記夢詩에서는 몽환이나 상상·공상으로 꿈이 해석되지 않으며, 『설문』에서 꿈을 해석한 現存性이 일관되게 드러나므로,

12) 퇴계 九曲權歌의 내용적 특색으로 '宗朱之情', '隱居의지', '遊仙思想', '進學의지'를 들었다

13) 「退溪九曲權歌析論」 왕소, 『퇴계학보』 46, 1985

14) 夢은 현실을 초월하게 하고 醉는 현실을 망각하게 하며, 예술생명에서 보면 시는 예술작품이며 美의 化身이므로 시인의 몽은 곧 美의 形象이고 시인의 취는 곧 美의 豪情이라 하였다

15) 「退溪의 醉夢詩」(中文) 왕소, 『퇴계학보』 56, 1987

퇴계는 자면서까지도 현존·현실적인 마음현상을 유지하고 있던 것으로 이해했다. 뿐만 아니라 퇴계는 꿈의 현존성을 유지·보존하기 위한 실험까지 시도하였는가 하면, 夢覺을 일체화하고 꿈에 본 사실을 생활화해서 마음 調攝法으로 활용하는 관점을 가지고 있었다고 추론하였다¹⁶⁾

왕소와 같은 시기에 퇴계문학 연구의 부진을 씻고자 精心으로 퇴계시를 연구한 이는 이동환 교수이다. 이 교수는 퇴계시에 관한 2편의 논고를 통하여 퇴계한시 연구의 새로운 지평을 열었다. 그 첫 번째 논고에서는 퇴계시의 본령을 '超越과 和諧'의 비전으로 보면서 퇴계 시의 주된 詩人意識을 '淸淨한 세계에 대한 希求'라 하였다. 이 교수는 청정한 세계를 표상하는 의상으로 梅花·月(달)·仙의 이미지를 제시하고, 混濁한 세계에 의해 제약된 자리에서 淸淨 세계에 대한 회구가 나타나며, 이러한 制約으로부터 벗어나 청정의 세계로 넘어가려는 志向을 '超越의 비전'으로 범주화하였다¹⁷⁾. 또한 퇴계 田園詩에서 보여지는 和諧의 비전은 主理論者였던 그의 낙관적 세계관에서 나온 것으로 자연과의 합일의 의미도 아울러 갖는다고 보았다¹⁸⁾.

또 한 편의 논고에서는 出仕期를 전후한 퇴계 시의 변화양상을 '拘俗으로부터의 脫却 - 자유에로의 지향' 의식이 변형적으로 표현된 것으로 보고 있다. 이 교수는 출사기의 작품들은 현실지평과 자아와의 깊은 乖離를 하나의 견딜 수 없는 구속으로 의식하고 있었으며, 구속으로부터의 탈각의 염원으로 갈등하고 있는 '仙界'의 飛翔이라는 시상에 집중되었다고 한다. 그러나 50세를 전후한 隱居期의 작품들은 달과 매화가 詩材로 즐겨 사용되면서 적극적인 자유에의 추구로 선회하면서 陶山 일대가 '선계'로 表象했던 '자유'의 공간'으로 구현되는 것으로 본다. 따라서 출사기에 동경한 '선계'는 시인이 表象하고자 한 '자유'의 공간'으로서만 의미가 있을 뿐이지 夢幻的 仙化에 대한 욕구는 없다고 했다. 또한 만년에 주로 읊은 달과 매화를 詩材로 한 작품들은 단순한 서정시가 아니라 '淸淨, 淸眞'의 세계, 곧 천리

16) 「퇴계몽유시의 현존성과 특징」 권오봉, 『김형수박사회갑기념논총』, 간행위, 1992. 권오봉 교수는 퇴계학 연구를 위한 기초작업에 심혈을 기울여 온 흔치 않은 퇴계학 전문가이다. 일본에서 퇴계연구로 박사학위를 취득한 후 『퇴계의 연거와 사상형성』(포항공대, 1989), 『퇴계가년표』(1989, 퇴계학연구원), 『퇴계시대전』(여강출판사, 1992), 『월란지』(대보사, 1993), 『퇴계선생일기회성』(창지사, 1994), 『퇴계서집성』(대보사, 1996), 『이퇴계의 실행유학』(학사원, 1996) 등의 저작을 통하여 퇴계연구에 다대한 공헌을 한 바 있다. 또한 수년에 걸쳐 퇴계유족지를 발굴탐색하고 기적사업을 전개하기도 하였다.

17) 이 교수는 이 초월의 비전을 가져오게 된 혼탁과 청정의 대립적 세계관은 그의 現實觀(외적 대립의 경우)과 理氣論에 근거한 心性觀(내적 대립의 경우)과 對應된다고 하면서, 퇴계시가 철학적 사유에 의한 자연과의 합일을 興感이라는 정서적 고양 쪽으로 받아들임으로써 영원자와의 어떤 신앙적 결합의 기미를 보여주기도 한다고 하였다. 또한 퇴계의 시가 단순한 서정 전원시가 아니라 철학적·도학적 사유를 그 깊이로 갖고 있을 것이라고 판단하여, 그러므로 퇴계시를 철학적 또는 도학적 서정시의 넓은 한 경지를 열어주는 방향으로 접근하여 연구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보았다.

18) 「퇴계의 시에 대하여」 이동환 『퇴계학보』 제19호 퇴계학연구원, 1978.

의 세계를 표상한다는 것이다 그리하여 퇴계는 '人欲'이라는 온갖 개아적 속성의 제약으로부터 해방된 '정신의 절대자유의 경지'인 천리의 세계를 思辨的으로 悟達할 뿐 아니라 情感的인 合一에까지 이르려 했으니, 이는 장자의 逍遙遊에서 느껴지는 것과 일면으로 통하면서도 인간의 地上的 삶을 떠나지 않는 자리에서 追求되는 것이라 했다¹⁹⁾ 이 교수의 논지 자체가 대립과 그 지양의 면모를 띠고 있음이 눈에 들어온다 즉 현실-이상, 탈각-지향, 출사-은거, 구속-해방, 몽환적-지상적, 천리-인욕 등등이 그것이다 결국 퇴계가 유자로서의 규범을 일탈하지 않으면서 '선계'를 동경하다가 마침내 일정한 시점에 이르러 도산과 매화와 달을 통해 절대자유의 세계로 들어갈 수 있었다는 것으로 이해할 수 있겠다²⁰⁾ 이처럼 퇴계의

19) 「퇴계 시세계의 한 국면」, 이동환, 『퇴계학보』 제25호, 퇴계학연구원, 1980 이 교수는 시분석을 통하여 얻어진 퇴계시의 청진한 의경을 사회이상으로까지 확대하여 적용해보는 대담성을 보여준다 퇴계가 도산을 중심으로 청진한 정신의 세계를 형성, 문제자들에게 전파를 통해 점진적이고 전면적으로 확충해감으로써 현실을 개선하여 이상사회를 구현해보려는 먼 안목 아래 현실에 참획하고 있었다는 것이다

20) 이동환 교수의 퇴계시에 대한 접근방식은 후속 연구자들에게 상당한 자극을 준 바 있다 그래서 퇴계의 문학적·사상적 입장을 분석하고 거기에서 추출된 핵심적 이론을 작품세계에 적용하는 식의 작업이 시도되기도 한다 성리학 이론과 시학적 내부질서의 상호소통 관계를 유기적으로 파악하려 한 예로 「退溪 漢詩 研究」(鄭雲采, 서울대 석사논문, 1987)를 예로 들 수 있다 성리학적 사유구조의 시적 표현을 중심으로'라는 부제를 단 이 논문에서 저자는 퇴계 主理論의 핵심용어를 理純不離·理發理到·物我一理로 정리하고, 일단 理純不離는 理의 순수성을 理發理到는 理의 자발성을 物我一理는 理의 물아상관성을 가리킨다고 규정한다 저자는 퇴계가 理의 순수성을 보장하기 위하여 理의 자발성을 주장하였고, 理의 순수성이 자발성을 통하여 나에게 실현되는 상태로 理의 물아상관성을 주장하게 된 것으로 파악하였다 이같은 이해를 바탕으로 저자는 이를 퇴계 문학관에서 추출된 蕩襟鄙吝(나를 벗어남, 물아가 괴리된 세계로부터의 탈각), 溫柔敦厚(저를 드러냄, 물에 대한 긍정적 관심), 感發融通(저와 나의 하나됨, 물아관계의 회복)으로 연결시킨 뒤 퇴계의 시가문학 작품에 어떻게 그러한 원리들이 투영되어 있는지 몇 가지 작품을 통하여 검증해 나갔다 그러나 필자의 안목에서는, 과연 퇴계한시의 사상전개 양식이 그의 성리학적 사유구조와 일치하고 나아가 퇴계 한시의 사상전개 양식이 그의 국문시가에서도 그대로 나타나는가 하는 문제를 설명함에 있어 저자의 보여준 이분법적 단순논리는 일정한 한계가 있어 보인다 성리학과 시문학은 바로 일대일로 대응시킬 수 있을 만큼 상호 긴밀성을 논하기 어렵다 상호간 높은 융합성과 소통성이 보장되는 동일차원의 사물이나 관념으로 양자를 보기 어렵다는 생각이 들기 때문이다 논리의 정합성이 부족하면 자연 기계적이며 도식적인 테호르케 되어 때로는 심각한 논리의 비약이 따르기도 하는 법이다 도식화와 이분법의 오류를 최소화하기 위해서는 주자와 퇴계의 이기론을 면밀하게 이해하는 길 밖에 없다 중국학자들이 주자의 시학을 이기론으로 확철하게 설명할 수 있다고 말한 예는 아직 보지 못했다 결국 성리학의 시문학에 대한 적용 문제는 理氣論을 어떠한 무언까지 확대해서 해석할 수 있는지 하는 것과 직결된다 요컨대 오늘날의 입장에서도 理氣를 가지고 모든 것을 다 설명할 수 있다고 볼 수 있는가, 또 퇴계가 당대의 모든 것을 이기의 시각으로만 보았을까 하는 물음과도 연관된다 본다 정우락은 「퇴계 인식론의 문학적 반응과 상상력의 구조」(『한국의 철학』 제21집, 경북대 퇴계연구소, 1993)에서 「성학십도」에서 보여주고 있는 인식론을 근거로 그의 문학과 상상력의 구조에 대해 살폈다 즉 퇴계의 상상력은 변화-불변이라는 시간성에 의해 구조화되고 있으며 변화속의 불변이라는 보다 높은 공간을 지향하고 있다 하여, 이같은 인식론의 문학적 실천으로 퇴계문학이 이루어졌다고 보았다 또한 성리학과 관련지어 퇴계의 시문학을 검토한 것으로 「퇴계 성리학의 시문학적 변용양상 연구」(李璉, 동국대 박사학위, 1993)가 있음을 밝혀 둔다

시는 속류 문인들의 口氣와는 구별된다는 점에 동의하지만, 퇴계의 시가 마치 성직자의 종교적 체험을 고백한 것인 양 해석하는 데는 동의할 수 없다. 그러므로 퇴계의 시를 지나치게 고답적으로만 해석하는 것만이 능사는 아닐 줄 안다²¹⁾ 잘못 이해하면 퇴계와 같은 사변적 정서적 체험이 가능한 경지에 이른 사람만이 퇴계의 시를 이해할 수 있다는 독선에 빠져들 수 있기 때문이다.

퇴계 이후 추종자들에 의해 가려지고 굴절된 이퇴계를 보지 말고 그 본래의 모습을 찾아보라고 외친 이는 이장우 교수이다. 그는 자신의 주장을 증명해 보이기 위해 퇴계문집에 수록되지 않은 僧侶詩를 수집·분석하여 퇴계의 僧侶觀을 제시하였다. 퇴계는 승려가 塵世의 구속을 벗어나 자유롭게 遊行할 수 있는 것, 고요하게 산사에서 정진할 수 있는 점을 매우 좋게 보았으며, 불교를 반대하는 태도를 견지하면서도 승려를 노골적으로 조롱하지 않았다고 했다²²⁾ 그 뒤 이 교수의 관심은 퇴계 시의 변화발전 과정을 파악하기 위한 使行詩 연구로²³⁾ 이어졌고 다시 방향을 틀어 퇴계의 작문태도에²⁴⁾ 눈을 돌렸다가 『師門手簡』에 나타난 퇴계 시와 시평을²⁵⁾ 검토하는 데로 나아갔다. 일찍이 왕소의 『퇴계시학』을 역주하면서 고민했던 주석문제를²⁶⁾ 돌파하기 위한 방안을 찾아나서는 길에 마침내 퇴계시를 완벽해내겠다는 야심찬 계획을 세우고, 86년부터 『퇴계학보』에 퇴계시 역주성과를 보고하기 시작하여 이미 2권의 역주서를 상재한 바 있다²⁷⁾ 퇴계 시를 공부하는 학도들로서는 여간 다행한 일이 아니다.

손오규 박사는 퇴계의 시가문학 세계를 '山水詩'로 보고 전면적 연구에 착수한 바 있다. 그리하여 眞山眞水를 노래한 퇴계의 산수시는 老莊의 玄理를 담고 있는 산수의 詩歌를 배경할 뿐만 아니라 寫實의 정신에 입각하여 蘇軾으로 대표되는 別派와 江西派 문학적 경향도 배경하고 정통적인 유가의 문학관에 의하여 미의 所在를 自然에 두었다고 보았다²⁸⁾

21) 퇴계의 작품이 거의 유교사상이나 윤리규범을 직접 교술하거나 그것을 지향하는 생활과 뜻을 표백한 것이어서, 시의 의미내용이 관념이나 개념으로만 전달될 뿐 독자들의 정서로 체험되거나 미학적 감동으로 살아나지 않는다는 견해를 제출한 연구(『퇴계의 詩歌』, 芮昌海, 『국어국문학』 제101호, 국어국문학회, 1989)가 보고된 바 있다. 사실 퇴계의 작품이 모두 관념이나 개념으로 전달된다고는 말할 수 없다. 직설적으로 유교사상을 표현한 작품도 있지만 모두가 다 그런 것은 아니다. 문제는 시를 보고 해석하는 독자의 태도가 중요하다. 일단 선입견을 버리고 스스로 미학적 감동을 느껴보도록 노력할 일이다. 선입견 속에는 전인들이 내린 존경과 찬양으로 이어진 퇴계시에 대한 고답적 해석이 한 몫하고 있음도 잊지 말 것이다.

22) 『퇴계시와 승려』 이장우, 『퇴계학보』 제68집, 1990

23) 『퇴계의 使行詩』 이장우, 『퇴계학연구』 제2호, 단국대 퇴계학연구소, 1988

24) 『퇴계의 작문태도』 이장우, 『퇴계학연구』 제8호, 경상북도, 1989

25) 『사문수간에 나타난 퇴계시와 시평』 이장우, 『퇴계학연구』 제9호, 경상북도, 1990

26) 『퇴계문집주석소고』 이장우, 『퇴계학보』 제48집, 1985

27) 『퇴계시 풀이』 제1권(이장우·장세후 역 중문출판사, 1996), 『퇴계시 풀이』 제2권(중문출판사, 1998)

이 밖에도 퇴계 시문학에 대한 다양한 연구가 수행되었다 이가원 선생은 퇴계 시에서 「陶山雜詠」이 閒適詩를 대표한다고 보고 朱子詩와 비교분석하여 「도산잡영」의 요체가 山林之樂에 있고 山水之樂으로 귀결되는데, 퇴계의 산수지락은 孔孟의 仁智之樂에 연원하고 있음을 밝힌 글도 있다²⁹⁾ 이민홍 교수는 퇴계가 주자의 「무이도가」를 수용하여 차운한 「九曲權歌」의 창작은 사림과 시가문학이 새로운 방향으로 발전하는데 결정적 기여를 하였다고 평가하였다³⁰⁾ 또한 장세후 박사의 『퇴계잡영』을 통해 퇴계의 생활상 및 교육관의 변천을 고찰하여 그 가치를 따진 것이³¹⁾ 있는가 하면, 퇴계 출사시의 작품에서 「至月十六日雪」과 같은 民生苦를 부드럽게 표현한 憐民의 시를 찾아내어 이를 社會詩의 범주에 넣어 논하므로써 퇴계시를 보다 다면적으로 보는데 기여한 정범진 교수의 논의도 있었다³²⁾ 또한 길재·백이·장량·상산사호·유비·제갈량 등을 대상으로 한 퇴계의 한시를 분석하여 역사변동기를 살았던 인물의 거취에 대한 퇴계의 시각이 곧 그의 역사인식을 반영한다고 보고, 퇴계는 한 특정한 역사적 시기에 행한 인간의 실제적 역할보다 역사를 초월하여 존재하는 인간의 도리를 확립하는 것을 더욱 중시하는 理學的 역사인식을 지닌 것으로 이해한 이혜순 교수의 연구도 있다³³⁾ 한편 自然詩 분석을 통해 퇴계의 正心論을 검증해내려는 시도가 있기도 하였다 김태안 교수는

28) 「퇴계의 산수문학 연구」 손오규, 성균관대 대학원 박사논문, 1990

29) 「陶山雜詠과 山水之樂」 李家源, 『퇴계학보』 46집, 1985 본문에서 따로 자리를 마련하기 어렵기에 초창기 퇴계학 진흥에 노고를 아끼지 않았던 이가원 선생이 제출한 퇴계문학에 관한 논고를 잠시 소개하기로 한다 퇴계시역주를 비롯한 수많은 노작을 남긴 이 교수는 「퇴계의 시문학연구」-短歌와 詩歌에 대하여(퇴계학연구원, 퇴계선생사백주기념사업회, 1972), 「퇴계선생의 문학」(『한국의 철학』 4, 경북대 퇴계연구소, 1976), 「퇴계시의 특징」-溫柔敦厚에 대하여(『퇴계학보』 제43집, 1984년), 「퇴계선생의 和陶集飲酒二十四首 初探」(퇴계학보 52, 1986), 「退溪學及其系譜的研究」(퇴계학연구원, 1989) 등의 논고를 발표한 바 있다 그 중 「퇴계시의 특징」은 퇴계가 전통적인 시교인 溫柔敦厚를 종지로 삼아 시가 창작을 했다고 보고, 그 시의 특징을 道文一致, 薰陶德性(퇴계시 중 태반을 차지함), 憂國憐民, 不專陶杜(도잠·두보 이외에 백居易 구양수·소식·주자 등의 장점을 섭취함) 등으로 나누어 이해한 글로 필치 곳곳에 퇴계집을 성력으로 읽어낸 공력이 느껴진다 장세후는 「퇴계의 주자시 수용」(『퇴계학보』 93, 1997)에서 퇴계가 주자시에서 무수한 전고를 매우 다양한 방식으로 취한 사례를 꼼꼼하게 검토한 바 있다 또한 논고에서 장세후는 두 사람의 시관을 비교하여 주자에게서는 作詩와 道學 사이의 갈등 해소과정이 드러나는데 반해 퇴계에게는 그러한 갈등이 보이지 않는데, 이는 주자가 시적이 도학에 방해되지 않는다는 것을 입증한 결과를 토대로 퇴계가 시작의 공용성을 발휘했기 때문으로 하였다

30) 「무이도가 수용을 통해 본 사림과문학의 일양상」 이민홍, 『한국한문학연구』 제6집, 한국한문학연구회, 1982 이와 관련하여 유준영 교수의 「구곡도의 발생과 기능에 대하여」(『고고미술』 제151호, 1982)도 일정한 참고가 된다

31) 「퇴계와 퇴계잡영」 張世厚, 『퇴계학보』 84, 1994

32) 「퇴계선생의 사회시」 정범진, 『퇴계학보』 제68집, 1990

33) 「퇴계시에 나타난 역사인식」 이혜순, 『퇴계학연구』 제2호, 단국대 퇴계학연구소, 1988 퇴계의 題畫詩를 분석한(『퇴계시의 한 국면』-계화시연구의 시론으로 박무영, 이화어문논집 10, 이화여대 한국어문학연구소, 1989) 글도 퇴계시의 연구영역을 확대하는데 일정한 공헌을 한 것으로 평가된다

퇴계가 말한 '문학의 正心작용'이 賞自然의 감흥을 노래한 自然詩에 드러난다고 하면서, 山水詩에 나타나는 형상들을 흥취·한정·言學으로 나누고 이를 정심론과 관련지어 분석한 결과에 따라 퇴계문학이 윤리적 가치와 미적 가치가 고도의 문학형상으로 통일된 체계를 갖추었다고 한다³⁴⁾ 山水와 관련하여 시적 형상화 과정에서 보이는 미학적 원리를 자연과 인간이 융화된 미의식을 理趣的 시경으로 창출해 내는 것이라 본 정동화의 논문도 제출되었고³⁵⁾, 퇴계시가를 風流의 차원에서 이해한 연구도 있다 이동영 선생은 우리 민족의 전통으로서 특히 조선조에 교육 받은 사람들이 가장 이상적 표준으로 삼았던 삶의 방식이 풍류이기에 퇴계도 風流韻事를 소홀히 하지 않았으니, 그의 풍류는 덕을 바탕으로 한 자연과 조화의 질서로써 온유둔후한 인간애를 갖추었다고 한다³⁶⁾ 한 가지 더 소개하자면, 퇴계가 40대 출사기에 春愁, 離恨, 旅愁를 표현한 詞 3수를 분석한 연구도 차주환 선생에 의해 이루어졌다³⁷⁾ 퇴계의 詞 창작은 그의 문예적 취향을 엿보게 해주는 좋은 사례로 볼 수 있다

왕소 교수 이외에도 퇴계문학, 특히 시가에 관심을 표명한 중국계 학자들이 여럿 있다 邱燮友 교수(臺灣師範大學)는 제4차 퇴계학국제회의 발표논문 中文提要를 통해 퇴계 시의 특색을 살폈다 그는 詩에는 詩趣가 있는데, 시취는 情趣·畫趣·理趣로 구성되며, 理趣는 대체로 說理詩 혹은 哲理詩 속에 담겨져 있다 하고, 퇴계 시에 나타나는 理趣를 意醉·餘意·神理·天趣로 나누어 분석한 뒤 이를 宋詩와 비교했다 그가 내린 퇴계 시의 특징은 송대 理學家들과 같이 깨달음의 도리(悟道而灑落)를 시 속에 사용하여 시의 새로운 경계를 개척한 데 있다고 하였다³⁸⁾ 그 뒤 李猷 교수(臺灣淡江大學)가 「和陶集飲酒」를 비롯한 30여수의 퇴계시를 감상하여 장법·구법·음운·의경 방면에서 받은 인상을 정리하였다 이 교수는 논문에서 퇴계의 작품은 詩人이 쓴 시라 하고, 詩格은 晚唐과 兩宋 사이에 있으며, 인격의 같고 담음과 함양함이 남김없이 시편 깊이 녹아 있어 표면상 쉽게 그 흔적을 찾아 볼 수 없으니, 이것이 퇴계 시의 고명한 점이며 사랑할 만한 점이라 했다³⁹⁾ 이 교수의 논고는 도학자라는 선입견을 가지고 퇴계 시를 이해하려 하는 일반의 태도와는 시각을 달리한 점이 특색이다 앞서 구섭우와 같은 논제를 가

34) 「正心の 시학과 자연시」-퇴계시를 중심으로 김태안, 『안동문화』 제14호, 안동대 안동문화연구소, 1993

35) 「퇴계 산수시의 形象化에 대하여」 정동화, 『퇴계학연구』 제11집, 1997, 단국대 퇴계학연구소

36) 「이퇴계의 詩歌와 道學」(이동영, 『퇴계학보』 창간호 퇴계학부산연구원, 1995)

37) 「退溪詞 評說」 차주환 『퇴계학보』 제34호 1982

38) 「退溪詩의 理趣」(中文) 邱燮友 近世儒學과 退溪學, 『퇴계학보』 29집, 1981 필자는 아직 이 논문의 전체원고를 얻을 수 없어 요약문만 읽었음을 밝혀 둔다

39) 「한국 퇴계 선생의 시학을 논설함」 李猷, 『퇴계학보』 40집, 1983

지고 퇴계시를 관찰한 杜松柏 교수(臺灣中興大學)의 논고도 우리들의 주목을 끈다. 두 교수는 청대 비평가 袁枚가 『隨園詩話』에서 말한 '說理詩'를 단서로 삼아 퇴계의 시를 분석하였다⁴⁰⁾ 그는 설리시를 '直言論說', '寓理成趣', '反常合道, 無理而妙' 등 3가지 유형으로 나누고, 이 중에서 '無理而妙'한 것은 퇴계시에서 찾아내기 어렵다고 한다. 퇴계시에는 直言說理한 것이 대부분이라⁴¹⁾ 하고 그 내용을 明志自箴, 論道述學, 詠物見意, 開示勸勉 등으로 나누어 놓았다. 이어서 퇴계 시에서 '寓理成趣'한 작품에 대해 논했는데, 「陶山春暮偶吟」·「喜還亭」·「步自溪上踰山至書堂」 등과 같은 작품들을 佳作로 꼽으면서, 이러한 것들은 說理했으되 설리의 名相을 남기지 않고 事物情景 속에 감추어 놓아 시의 맛이 盎然하여 玩詩得理하고 由理得趣하는 妙가 있다고 했다. 그러나 애석하게도 퇴계는 理學家的 습기가 자못 많았기에 이러한 작품을 많지 남기지 못했다고 보았다⁴²⁾ 퇴계의 理趣詩를 논한 글 중에서 여기 杜 교수의 글이 가장 沈着하다고 볼 수 있겠다. 柳存仁 교수(호주 국립대 명예교수)는 퇴계의 非哲理詩에 대해 주로 논파하고자 했다. 그는 理學思想과 관련성이 적은 비철리성의 작품 중에는 함축성 있고 혼후하며 문장의 기세가 웅장하고 문구가 세련된 것이 참으로 많다고 했다⁴³⁾ 또한 憂國愛民의 胸懷를 드러낸 것과 같은 비철리시의 수량이 철리시보다 더 많으며 묘사 범위 또한 지극히 광범위하여 철리시가 단지 협소하게 明理라는 것을 담론하는 것과 다르다 하였고⁴⁴⁾ 퇴계는 독서를 많이 하고 궁리를 많이 한 사람으로 南宋의 비평가 嚴羽가 말한 "理의 길에 빠지지 않고 말의 통발에 걸리지도 않은 것이 뛰어난 것이다"라는 경계를 성취하였다고 평하였다⁴⁵⁾ 그러나 柳 교수의 관점은 흥미를 끌지만

40) 두 교수는 사람의 본성은 情感과 理性을 모두 가지고 있으나, 문학으로 표현될 때 抒情은 詩歌로 나타나고 說理는 議論으로 나타난다고 보고 그러나 서정이 위주인 시가라고 해서 설리 의론을 하지 못하라는 법은 없지만, 以詩論詩하면 설리시는 眞心直說이니, 설리를直言하는 것은 설리의 흔적을 남기지 않을 수 없게 되므로 진정 잘된 설리시는 설리의 흔적을 남기지 않는 것인데, 比·興의 방법을 써서 形而下者를 가지고 形而上者를 寓說해서 썰렁하게 설리하지 않고 狀物로 明理하는 것이다라 하였다

41) 이는 理學家들이 說理하기를 좋아하는 習氣가 그렇게 만든 것으로 보인다고 했다

42) 「退溪의 寓理詩」(中文) 杜松柏, 『퇴계학보』 제55집, 1987

43) 柳 교수는 퇴계가 老佛學을 공격한 것이 陸王學을 배척한 것보다 격렬하지 못하였고 그의 사상이 비록 유교를 위주로 하지만 불교와 도교에 있어서도 관용적인 언급이 있어 엄격한 태도를 보이지 않았는데, 그 원인이 宋明理學書를 읽으면서 북송 이후로 이학을 강론한 자들과 마찬가지로 불교 도교와 관계를 완전히 단절할 수 없었던 데 있다고 하였다. 이 점은 앞서 이장우 교수의 논고에서 밝혀진 퇴계의 승려관과 연락되는 부면이 있다

44) 柳 교수는 퇴계는 전인들의 작품을 이용하여 자신의 詩境을 나타내는 방식인 換骨奪胎에 정통하였고, 和韻이나 用典에도 능숙하여 전혀 꾸밈없고 자연스럽다고 한다. 또한 嘉靖·隆慶 년간의 詩必盛唐 文必秦漢을 강조하는 擬古風潮에 물들었던 명대 시인들과는 길을 달리한 것으로 보았다. 그러나 한국한문학사를 검토해 보면 퇴계시대에는 아직 명대의 문풍이 유입되지 않았음을 알 수 있다. 명대 의고주의 문풍은 퇴계사후 임란을 전후로 한 시기에 소개되었으므로 柳 교수의 위와 같은 언급은 조선한문학의 현실을 간과한 결과로 보인다

구체적인 작품예시가 부족하여 자신의 입론을 검증하는데는 무리가 있어 보인다

왕소를 비롯한 중국계 학자들의 견해는 우리 연구자들에게 시사하는 바가 적지 않다 그들은 중국전통시학의 관점으로 퇴계시를 읽고 감상하며 분석하고 평가하는 일이 몸에 배어 있어, 주장하는 바에 출처가 있고 주장하는 방향이 선명하다 비록 우리의 역사적 삶과 그로부터 형성된 민족정서를 體化하지는 못했지만, 역대의 중국시를 일과처럼 접하며 감상하는 예술적 수양과정으로부터 얻어진 수준 높은 심미 능력에 기대어 퇴계시의 묘처를 찾아내는 데 익숙하다⁴⁶⁾ 백지장도 맞들면 훨씬 가벼운 법이다 그래서 중국학자들의 참여가 우리에게 큰 힘이 되는 것이다⁴⁷⁾

퇴계 한시를 연구한 많은 논저들은 이상에서 소개한 것 이외에도 상당수 있을 것이나⁴⁸⁾ 일일이 소개하는 번거로움을 줄이기로 한다 다만 여기서 한 가지 더 언

45) 「이퇴계의 非哲理詩를 논함」 柳存仁, 『퇴계학보』 제89집, 1996 본래 이 글은 『東方文化』(香港대학, 1990)에 기고한 것인데, 퇴계학연구원에서 그 원고를 우리말로 번역하였다 필자는 아직 『동방문화』에 실린 원고를 보지 못하였다 번역문을 읽으면서 글의 흐름이 조금 매끄럽지 않다는 느낌을 받은 바 있는데 원고자체가 그런지 저옥이 의심이 간다

46) 중국 학자들이 퇴계 한시를 읽어내는 시학적 심미판단 능력은 뛰어나지만, 한국인과 같은 수준의 환경이해나 언어정서를 지니지 못하기에 그들이 내린 심미판단에는 일정한 한계가 있다 퇴계가 아무리 시가창작의 전범을 중국시에 두고 이를 바탕으로 한시를 창작했다 하더라도, 창작과정에서 생애적으로 그에게 주어진 자연환경과 인문환경의 일정한 제약을 받지 않을 수 없었을 것이다 특히 만년에 도산서당을 열고 여러 문도들과 수창한 한시들은 당시의 시대적 상황과 문도들의 처지를 이해하지 못한다면 퇴계 한시의 의경을 꺾진하게 파악해 낼 수 없을 것이다 퇴계가 한시작법에 맞추어 시를 지을 때, 1차적으로 모국어 문법으로 사물을 인식했다고 보면, 중국인들의 퇴계시 이해가 시에 표현된 詞藻와 퇴계의 自註를 통한 이해수준을 넘어서기 어려웠을 것으로 판단된다

47) 한 동안 있었던 대만과의 불편한 관계로 인해 우리들은 그 쪽의 퇴계학 연구자들을 접할 기회가 적어졌다 그 틈을 대륙의 학자들이 매워주고는 있으나, 문학분야에 있어서는 춘보의 진전을 이루지 못했다 이 점이 퇴계문학을 어깨 너머로 배우고자 하는 사람에겐 큰 유감으로 남지 않을 수 없다

48) 본문에서 다루지 못한 연구자 중에서 서수생 교수의 논고를 잠시 소개할까 한다 서 교수는 이른 시기에 본격적으로 퇴계문학에 관심한 연구자 중의 한 분이다 그는 「퇴계문학의 연구」(『한국의 철학』 제1집, 1973, 경북대 퇴계연구소)에 이어 「퇴계는 문학을 어떻게 보았나」(『문학사상』 24, 문학사상사, 1974)를 학계에 발표하여, 퇴계의 문학적 입장과 문학세계를 포괄적으로 이해하는데 기여한 바 있다 그 뒤 후속된 작업으로는 「退溪詩書의 特異性」(『퇴계학보』 제36호, 1982)와 「퇴계의 한시연구」(I)(『한국의 철학』 제14호 경북대 퇴계연구소, 1986)가 있다 「退溪詩書의 特異性」에서 서 교수는 퇴계의 詩觀과 시적 미감에 대해, 퇴계시가 內在的 美感에 있어서는 은유적 역사의식, 自然眞樂에서의 憧憬과 淸標心, 철학적 言外有意와 純靜性 등을 내용으로 하면서, 외형에 있어서는 울격을 철저히 갖춘 정형시의 명수였다고 하면서 하서 김인후가 퇴계를 평하여 「李杜文章王趙筆」이라 했으나 퇴계 시서의 실상으로 보면 「陶杜文章王右軍」으로 바꾸어 불러야 한다고 하였다 「퇴계의 한시연구」에서는 퇴계의 시를 隱喻的 역사의식, 自然眞樂과 閑靜性, 花木詩의 淸眞性, 철학적 言外有意性, 回文詩의 平淡性 등으로 나누어 논의하기도 하였다 아마도 퇴계의 글씨(書)에 대한 문예적 검토를 시도한 분으로 서 교수가 처음이 아닌가 한다 퇴계가 말한 文藝는 필시 문학과 예술을 포괄하는 개념일 터인데 그렇다면 보다 깊이 있는 퇴계의 서법예술에 대한 연구도 있어야 하지 않을까 한다

급할 대목은 퇴계시가에 대한 品格문제이다 현재까지 이루어진 품격연구는 손으로 꼽을 정도로 미진한 편이다 퇴계시가의 품격을 '枯淡'으로 보고, "이 고담은 자연 속에서 오랜 동안의 인격 수양과 정신의 함양으로부터 이를 수 있는 승화된 시적 품격이며 기나친 感情移入조차 경계하게 되어 溫柔敦厚한 서정을 지향하게 된다"고 한 견해⁴⁹⁾ 등이 최근에 와서 제출되는 현실이다 한시 연구에서 최고 층위가 품격(풍격)연구라고 한다 품격이해는 한 두 작품을 분석해서 얻을 수 없고 작가나 작품에 대한 총체적 파악을 전제로 이루어지는 것이다 따라서 설부른 품격론은 오히려 독자에게 왜곡된 미의식을 전달할 수 있으므로 신중을 기해야 한다 20여년의 연구성과에 힘입어 퇴계한시와 도산십이곡에 대한 일정한 수준의 이해가 가능해 졌다고 보면, 퇴계시가에 대한 품격연구는 이제부터가 시작인 것이다

퇴계의 散文 연구는 아직 초기 단계에 머무르고 있다 산문연구 중에서 먼저 이루어진 논고들은 퇴계 비지문에 대한 것이다 퇴계가 찬한 墓碣銘의 내용을 분석하거나 그의 비지문에 대한 인식을 주로 검토하였다 퇴계는 비지문을 傳後文字라 하여 찬술에 매우 신중을 기했고 규모가 큰 神道碑文에는 전혀 손을 대지 않은 철저한 碑文不作論者였음이 드러났다 또한 局促하지 않은 문장을 쓰기 위해서는 반드시 修辭가 필요하다고 여기고 글귀마다 세심한 주의를 기울였다는 것이다⁵⁰⁾ 퇴계가 남긴 山水遊記와 序跋文을 연구한 논고도 이루어졌다 퇴계의 산수유기는 유람적 성격이 짙으며 세속을 벗어난 초연한 심경에서 散懷를 목적으로 하고 유람하고자 하는 사람들에게 안내서와 같은 역할을 할뿐만 아니라 직접 탐승에 나서지 않고도 유람의 효과를 얻을 수 있는 글로서 遊山の 興이 그 주축을 이룬다고 한다 또한 퇴계의 산수유기에는 遊山の 興과 함께 敍景美가 돋보이며 특히 「陶山記」는 산수에 기탁한 志도 잘 나타나 있어 후대 조선조 도화파의 시가 문학 전통으로 그 맥이 이어졌다고 보았다 아울러 퇴계의 서발문에 나타난 산수의 미는 모두가 실제로 존재하고 있는 자연으로서의 산수에 대한 아름다움을 노래하고 있으며 산수를 조망하거나 이념과 연결되어 있지는 않다고 한다⁵¹⁾ 다른 연구에서는 山水遊記에 표현된 산수유람의 전 과정이 진리체의 궁구과정을 상징

49) 「퇴계의 산수문학 연구」(손오규, 성균관대 박사논문, 1990) 이 밖에 퇴계시의 품격과 관련한 논의로는 「퇴계의 시와 閑靜性」(趙載億, 『퇴계학연구』 제5집, 단국대 퇴계학연구소, 1991), 「퇴계시가의 품격연구-도산십이곡을 중심으로」(李敏弘, 『반교어문연구』 4, 1992), 「퇴계시가의 품격」-『平淡』에 관한 연구(李然世, 퇴계학연구 제6집, 1992) 등이 있으나 아직 만족스러운 성과를 보이지 못하고 있다 특히 퇴계를 말할 때, 가장 자주 사용되는 '溫柔敦厚'를 품격으로 보아야 하는지 어떤지에 대한 본격적인 논의가 부족하다

50) 비지문과 관련한 논문으로는 「退溪碑誌文 고찰」(安秉烈, 『퇴계학』 창간호, 안동대 퇴계학연구소, 1989), 「퇴계의 비지문자론 연구서설」(李鍾虎, 『퇴계학』 제2집, 1990), 「퇴계의 비문부작론」(이종호, 『한문교육연구』 제5호, 1991), 「퇴계의 갈문수사에 대하여」(이종호, 『퇴계학』 제3집, 1991), 「조선조 사대부층의 비지문자론」(『교남한문학』 제3집, 1990) 등이 있다

51) 「퇴계의 산수문학 연구」, 손오규, 성균관대 대학원 박사논문, 1990

한 것이며, 序跋文에서는 퇴계의 求志와 實事求是 정신이 잘 드러나 있음을 밝힌 바 있다⁵²⁾

향후의 퇴계 산문연구는 앞서 이루어진 碑誌文과 序跋文, 遊記 분석이 새로운 시각에서 보다 심화되어야 하고, 아울러 아직 손을 대지 못한 다른 산문에 대해 본격적인 探討가 이어져야 할 것이다 그러나 이 시점에서 우선적으로 요청되는 것은 퇴계 書簡文에 대한 연구이다 서간문은 퇴계산문의 주종을 이루고 있을 뿐 아니라 일상적인 書寫행위로 그의 문장관이 극명하게 반영되어 있을 것으로 본다 퇴계는 주자 서간문에서 요긴한 대목을 뽑아 『주서절요』를 편찬하여 주자학 연구의 길잡이로 삼았거니와 자신의 서간문도 『자성록』으로 엮어 자아성찰의 요긴한 자료로 삼은 바 있다 물론 『주서절요』 편찬 동기가 당시 詞章 위주로 주자의 글을 대하는 풍조를 시정하려는 데 있기는 했으나, 서간문이야말로 한 인격체의 심령세계를 알아내는 데 가장 효율적이라고 생각한 때문이다 따라서 퇴계 서간문 연구는 단순히 문학적 측면에서만 의의가 있는 것이 아니라 퇴계의 인간상을 총체적으로 파악하기 위해서도 필요한 것이다 문학적인 측면에서 퇴계 서간문 연구에서 먼저 착수해야 할 곳은 構法과 修辭 方面이다 구법이란 문장의 시작과 중간과 끝이 어떻게 이루어지고 있는가를 살피는 작업이고, 수사는 글에 동원되고 있는 詞藻나 用語(稱謂를 포함한), 陳述形態 등을 분석해 내는 것이다 서간문의 내용과 성격에 따른 구법과 수사를 분석해나가면, 퇴계 서간문의 특징이 저절로 드러날 수 있을 것이다 퇴계가 정치활동 중에 자신의 정치적 견해를 담은 「戊辰六條疏」와 같은 政論散文도 연구할 가치가 있다 일반적으로 산문은 글의 성격에 따라 정도의 차이는 있지만 서정과 서사, 의론이 착종되어 있다 상소문은 서정이나 서사산문과는 달리 의론이 주가 되어 대상(국왕)을 감동시켜 자신의 주장을 관철하려는 목적하에 쓰여지는 것이다 따라서 설득력 있는 글쓰기를 퇴계가 어떠한 방식으로 실천하고 있는지 알아내는 것이 상소문 연구의 핵심이 될 것이다

4

이제 퇴계 시가문학론에 대한 쟁점을 검토하기로 한다

지금까지 퇴계의 시가문학을 둘러싼 논의의 쟁점은 그의 국문시사인 「陶山十二曲」의 창작동기에 관한 것이다⁵³⁾ 일찍이 趙潤濟 선생은 “시가문학방면으로 본다

52) 「퇴계의 山水遊記」(심경호, 퇴계학연구 제10집, 단국대 퇴계학연구소 1996) 「퇴계의 서발문」(심경호, 한국의 철학 25호, 경북대 퇴계연구소 1977)

53) 「도산십이곡」의 내용에 대한 연구는 「퇴계문학에 나타난 자연관과 인간관」-도산십이곡을 중심으로(김광순 『연민학지』 제1호, 1993, 연민학회) 「이퇴계의 도산십이곡 연구」(서원

하더라도 퇴계는 실로 위대하였다 보여진다 그 심오한 성리학을 완전 이해하고, 또 그를 발전시키는 것도 결코 용이한 일이 아닌데도 문학을 즐길 여유를 가졌으며, 또 그 위에 한국시가에게까지 조예를 쌓아, 우리 시가문학상에 도산십이곡과 같은 그러한 우수한 작품을 남겼다는 것은 실로 그 정력에 감탄하지 않을 수 없을 뿐 아니라, 더욱이 국학에 뜻을 두어 그 민족적인 의식이 뚜렷이 나타나 있다는 것은 아무래도 선생을 숭배하지 않을 수 없다”고 말한 바 있다 이는 민족주의 사관에서 본 퇴계문학에 대한 평가이다 이같은 조운제 선생의 인식에 대해 시비할 생각은 없다 우리 것에 대한 애정은 어떠한 신념보다 우선한다고 믿기 때문이다 사실 퇴계의 도산십이곡에 대한 후학들의 관심은 조운제 선생의 이같은 발언으로부터 촉발된 감이 짙다 그는 퇴계 시가문학의 계통과 영향관계를 살피기 위해 장육당 이별, 농암 이현보, 회재 이언적, 신재 주세붕, 금계 황준량 등과 퇴계의 관련성을 추적한 바 있다 그는 “李麓六歌는 오늘에 전하지는 않지만, 그 때에 盛傳하였다는 점과 퇴계가 하필이면 이것을 들어 모방한 점을 생각하면, 그것은 시조로서 역시 우수한 작품이라 상상이 되고 퇴계는 어디인지 그 인물에 대하여 버리지 못할 점이 있다고 보았으리라 생각된다” 하고, 또 “도산십이곡이 이별육가의 직접적인 영향을 받아 이루어졌을 것만은 사실이니, 이별시가문학은 곧 퇴계시가문학에 어떤 형식으로나마 영향을 주었을 것은 틀림없을 것이다”라 하였다⁵⁴⁾ 이처럼 조 선생의 논고에서는 도산십이곡의 창작동기에 대한 언급이 빠져 있고, 단지 이별육가가 영향을 주었을 것이라는 추정을 제시했을 뿐이다

임형택 교수는 퇴계가 「도산잡영」과 「도산기」만으로도 읊을 것과 밝힐 것을 다 말해 놓고서 무엇 때문에 도산십이곡을 덧붙였을까 하는 의문을 품고 그 창작동기를 따졌다 그는 「도산십이곡발」에 창작동기가 나와 있다고 하면서 퇴계가 ‘歌唱의 필요성’ 때문에 한시 이외에 도산십이곡을 지은 것이라 했다 이어서 임 교수는 도산십이곡은 卽興적으로 지은 것이 아니고 무언가 숨은 의도가 있다고 보았다 퇴계가 도산십이곡발에서 翰林別曲을 매도한 것은 사대부들 사이에서 歌唱이 遊興적으로 흐르는 풍조를 경계하기 위함이고, 이별육가를 玩世不恭의 뜻이 있다고 비판한 것은 미수 허목의 「藏六堂六歌識」에 표현된 이별의 ‘高蹈拔俗’의 자세를 못마땅하게 여긴 때문이라고 하였다 임 교수는 『패관잡기』에 기록된 이별의

섭 『한국의 철학』 제2호 1974) 등 상당한 성과가 축적되어 있다 조동일 교수는 「시조의 이론, 그 가능성과 방향설정」(『우리문학과와 만남』, 홍성사, 1978)에서 퇴계의 시조를 本然之性에 관한 주장과 관련시켜 분석한 바 있고 최동국 교수는 「이황론」(『한국고시조작가론』 한국시조학회, 백산출판사 1986)에서 “자연에서 사물의 理를 체험하고 시에 드러낸 이상적 상태가 溫柔敦厚라면 시의 본질과 성격도 거기에서 찾아야 할 것이다 이렇게 철저한 도학적 간섭 속에서 단련된 성정을 표현한 시는 어디까지나 도학적 수용이지 시가적 수용은 못된다 인간 본능 속에 깊이 자리한 성정이 사변적 논리구조물로 다루어졌을 때 이미 시가의 구조물로는 결별되었기 때문이다”라 지적한 바 있다

54) 「퇴계를 중심으로 한 嶺南歌壇」 조운제 『청구논문집』 제8호, 청구대학, 1965

행적을 자세히 소개하여 방외인 타입의 인물로 규정하고, “방외인 타입의 인물들이 체제와 권력에 저항해서 자기의 주체성을 고결하게 지키는 경우 사대부다운 생활과 정신질서에 파탄을 일으키게 되었던 바, 퇴계는 이러한 인간 자세와 준엄하게 분별해서 다른 길을 모색하였던 것이다”라 하였다⁵⁵⁾ 임 교수의 논문이 발표된 후 이별의 漢譯육가 4장이 발견되어⁵⁶⁾ 학계에 소개되므로써 도산십이곡 창작의도에 대한 논의가 구체화되어 갔다

조운제 선생을 이어 퇴계의 국문시가 연구에 열정을 보인 분은 崔珍源 教授이다 그는 일찍이 퇴계의 도산십이곡 창작동기에 대해 나름의 견해를 밝힌 바 있다 그는 퇴계가 「陶山十二曲跋」에서 밝힌 ‘翰林別曲類는 矜豪放蕩하고 褻慢戲狎하다’, ‘李麓六歌는 玩世不恭의 뜻이 있고 溫柔敦厚의 實이 적다’, ‘국문시가는 한시와 달라서 노래할 수 있다’ 등의 세 가지를 「도산십이곡」 창작 동기로 보았다 그런데 문제는 퇴계가 부정한 矜豪放蕩·褻慢戲狎·玩世不恭이 과연 무엇을 뜻하는가 였다 최 교수는 矜豪放蕩·褻慢戲狎의 의미를 분석한 뒤, 한림별곡류의 주제가 風流와 관련된다고 하여 도산십이곡의 풍류는 ‘賞自然’을 뜻하므로 한림별곡류의 官能的 향락과는 다르며, ‘상자연’을 요구한 것은 전대 문자의 풍류를 극복함에 그 목적이 있다고 하였다 이어서 이별육가 漢譯詩와 「도산십이곡」을 비교하여 玩世不恭의 의미를 검토했는바, 퇴계가 이별의 육가를 모방한 것은 육가의 형식(육가-6장)과 내용(隱) 때문인데, 육가에서 드러난 隱의 自慢(‘忘世’와 ‘潔身傲世’의 기운)을 지적하여 ‘玩世不恭의 뜻이 있고 溫柔敦厚의 실이 적다’고 평한 것으로 보았다⁵⁷⁾ 이어서 최 교수는 도산십이곡에 나오는 ‘往來風流’는 山水遊賞=賞自然을 뜻하며 퇴계가 이를 무척 흥겨워했다고 보고, 도산십이곡의 興은 ‘서정으로서의 흥’에 ‘자연의 理의 분명함’을 깨닫는 이념적 감동과 ‘평이한 것’(일상생활)으로부터 理로 나가는 태도가 아울러 담겨 있다고 하였다⁵⁸⁾

李敏弘 教授는 퇴계가 이별육가를 지양하여 온유돈후한 조선시가의 모범이 되는 작품을 만들고자 했고, 이를 창작함에 있어서 이별육가에 ‘玩世不恭之意’를 제

55) 「국문시의 전통과 도산십이곡」 林熒澤, 『퇴계학보』 제19호, 1978 임 교수는 퇴계가 이별의 육가를 내용면에서는 비판하면서도 창작의 모델로 삼았다고 본다 그리고 도산십이곡의 역사적 기능에 대해 언급했는 바, 시조는 가창적 즉흥적·오락적인 것이나 도산십이곡은 가창적 전통의 소산이지만 즉흥적 오락적인 것은 아니었으며 그에 따라 국문시는 즉흥적인 오락물에서 본격적인 문학으로 지향을 보여 주게 되었다고 하였다 아울러 도산십이곡의 특징을 속가와 작위가 배제된 순수시로 보았다

56) 「藏六堂六歌와 六歌系時調」 崔載南 『어문논총』 7, 부산대 국어교육과 1983

57) 「陶山十二曲跋」(一) 최진원, 『인문과학』 제13호 성균관대 인문과학연구소, 1984 최 교수는 ‘溫柔敦厚’를 도산십이곡의 품격으로 보고, 그것은 퇴계의 敬公부에서 이룩된 抒情(性情的 醇正)이라고 말했다

58) 「陶山十二曲跋」(三) 최진원, 『도남학보』 제7·8호, 도남학회, 1985 최 교수는 육가의 자연관은 산수경치를(日用處로서의 산수경치)에 대한 시적감동을 매개하여 人間과 自然의 合一을 기하는 바, 이것이 퇴계의 賞自然이라고 본다

외시키고 주자의 「武夷雜詠」 등의 山水詩的 韻味를 가미한 것으로 보았다 왜냐하면 「도산십이곡」이 12수의 시이고 주자의 「雲谷雜詩」가 12수 6행시, 「武夷精舍雜詠」 또한 12수라는 사실을 우연의 일치로 볼 수 없기 때문이었다 그래서 이 교수는 도산십이곡 12수는 분명히 무이잡영과 운곡잡영의 20수를 원용했다고 본다 또한 이별육가의 6수가 12수로 팽창을 한 것은 단순히 그 분량의 차이뿐만 아니라 내용에 있어서도 상당한 차이가 있다고 하여, 이별육가가 六歌系의 특성을 지닌 작품이라면 도산십이곡은 朱子詩의 수용과 이조 사립파의 문예의식을 아울러 결들인 복합적인 것이라 볼 수 있다고 하였다 즉 도산십이곡은 이별육가의 노장적 은둔과 현실풍자와 분방한 서정 등을 배제하고, 朱子詩와 文以載道論의 사립파 특유의 수용과 접맥된 문학론과 品格論에 바탕을 둔 連作短歌라고 보는 것이다⁵⁹⁾ 이는 이별육가가 도산십이곡에 일정한 영향을 끼쳤다는 종래의 주장과 견해를 달리 하는 것이다 종래의 주장들은 도산십이곡이 이별육가의 내용은 거부했지만 형식은 계승한 것으로 이해해 왔으나, 이 교수는 퇴계가 내용과 형식 양면에서 육가를 부정한 것으로 보고 있기 때문이다⁶⁰⁾

曹圭益 교수는 전대 시가에 대해 퇴계가 '矜豪放蕩·褻慢戲狎·玩世不恭之意'라 평한 것은 한림별곡류 및 육가의 어떤 성격을 지적한 것인지, 전통 유가적 詩道이며 퇴계의 詩歌理想으로 제시된 溫柔敦厚가 도산십이곡에 어떻게 투영되어 있는가를 검토한 바 있다 그는 퇴계가 한림별곡류를 矜豪放蕩이라 질타한 이유가 여러 가지가 있지만⁶¹⁾ 특히 '나' 혹은 '자신들'의 우월함을 부각시킨 점이 부정적 평가의 빌미가 되었다고 한다⁶²⁾ 그리고 이별육가에서도 각 작품의 앞 부분에 서정적 자아로서 '나'가 유사성의 법칙과 감정이입적 방법에 의해 투영되어 있고 뒷 부분에 대응구조가 구체적으로 드러나기 때문에 퇴계가 이를 '玩世'로 본 것이고, 객체에 대하여 주체가 우월하고자 한 '자아도취'의 표현을 '不恭'으로 본 것이라 하였다 조 교수는 도산십이곡의 창작동기를 꼬집어 말하지 않았다 그러나 논지전개를 유추해 보면, 결국 퇴계가 '육가의 대립구조'에 반대하여 '전아한 평면적 구조'

59) 「도산십이곡의 은유론후」 이민홍, 『사립파문학의 연구』, 형설출판사, 1985

60) 이민홍 교수는 뒤에 다른 글에서 퇴계의 도산십이곡을 창작하게 된 동기를 전통적인 유교의 樂學思想에서 찾아내기도 하였다 즉 퇴계는 新聲과 世俗之樂을 경계했으며 亡國之音에서 治世之音으로 바꾸어 보려는 의지를 도산십이곡에서 표상한 것으로 보았다 (『사립파의 鄉樂에 대한 견해』 - 퇴계·율곡의 俗樂認識을 중심으로 『민족사의 전개와 그 문화』 상 간행위, 창작과 비평사, 벽사이우성교수정년퇴직기념논총, 1990)

61) 한림별곡류 자체의 내용, 형태가 지닌 부도덕성과 무규범성, 文士로서의 자긍심과 향락의 실상 등의 작품 내적 요인과 이러한 노래를 즐기던 가창의 현장, 즉 구연상황의 부도덕성 등과 같은 외적요인을 들었다

62) 조 교수는 퇴계의 비판적 평가가 시가의 장르적 교체에 결정적 기여를 한 당대 사립파의 문학관을 대변한 것이며, 이러한 배척해야 할 부정적 시도와 주장해야 될 긍정적 시도의 중간에 이별의 육가가 있는데, 작품 내용에 대한 재단비평적 규정이 '완세불공지'였다고 한다

의 표본을 제시하고자 도산십이곡을 창작한 것으로 볼 수 있겠다 왜냐하면 조 교수가 도산십이곡은 소재에 대한 시인 자신의 감정이입이 전혀 없고 서정성의 핵심인 대응구조가 결여되었다고 말했기 때문이다⁶³⁾

金鍾烈 교수는 비세속적인 노래를 싫어했던 노년의 퇴계가 국문시가를 짓겠다고 생각한 실제의 동기는 완세불공한 '이별육가의 盛傳'에 자극을 받은 데 있다고 하였다 완세불공한 이별육가의 유행은 당시 문인계층의 세태를 반영한 것이고, 이러한 세태를 극복하기 위해 은유돈후를 표방하였다는 것이다 따라서 도산십이곡이 이별육가를 비조로 삼아 순기능적으로 발전하여 도산십이곡계통의 문학적 계보를 형성한 것이 아니라, 방외인 문학으로서의 육가계 문학이 지니는 본래의 의미를 소멸시키고, 文以正心の 도학적 교조문학으로 대치시켜 주자적 은유돈후를 재천명한 것이다라 하였다⁶⁴⁾ 김 교수의 주장은 앞서 선행연구인 임형택 교수의 논문에 기술된 이별의 방외적 인간형에 대한 이해를 기초로 하고 이민홍 교수의 육가부정론을 근간으로 하여 보다 적극적으로 육가계승설을 반대한 것이다 아직 이민홍 교수와 김종렬 교수의 주장에 대한 반론이 제기되지 않고 있는 사정으로 보아, 일견 종래의 육가계승설이 퇴조한 것으로 추정된다

도산십이곡 창작동기에 대한 논의와 함께 퇴계의 가사창작 문제도 쟁점으로 부각된 바 있다 1960년대 초반부터 정주동, 신기형, 이가원, 서원섭, 김기탁 등에 의해 퇴계의 작으로 소개되고 연구된⁶⁵⁾ 환산별곡, 도덕가, 목동문답가, 상저가, 낙빈가, 권의지로가, 금보가 등 7편의 가사를 이동영 교수는 퇴계의 작이 아니라고 주장한다 이 교수는 7편의 가사에 대한 원전과 작가의 추정도 역사주의 비평 방법을 통해 보더라도 도저히 퇴계작이 될 수 없으며, 퇴계의 시가관이나 학문에 비추어 보아서도 용납될 수 없는 작품이라 하고, 修己正德을 통한 도덕적인 인격

63) 「퇴계의 시가관 소고」 曹圭益, 『퇴계학연구』 2, 단국대 퇴계학연구소, 1988 이러한 견해에 대해 비판적인 입장을 밝힌 글도 보인다 이동환 교수는 「퇴계문학 연구의 성과와 과제」에서 시조 연구에서는 시적 상상력의 구조와 운동을 탐구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하면서, 도산십이곡의 前六曲 네 번째 시를 예로 들어, 조 교수가 서정적 자아인 '나'가 숨어버림으로써 대응구조가 없어지고 평면구조로 되었다고 보고 주제를 제시한 것을 비판한 바 있다 김지용 교수도 「퇴계의 시와 다산의 시, 그 표현양상의 비교연구」(『퇴계학연구』 제4호, 단국대 퇴계학연구소, 1990)에서 도산십이곡에서는 시인 자신의 '나' 즉 본체를 들어낼 이유가 없다고 하면서, 오히려 조 교수의 지적대로 "선형적 가치개념이 확고하게 서 있고 그것을 선양하려는 은연중의 목적의식이 창작행위의 저변에 깔려있는 한" 시인의 얼굴을 내밀 필요가 없으며, 내밀었다가는 졸작이 될 것이라 했다

64) 「퇴계의 도산십이곡 창작에 관한 새 고찰」 金鍾烈 『퇴계학보』 73집 1992

65) 이에 대한 논문으로 「금보가」(정주동, 『어문논집』 2, 경북대문리대, 1964), 「퇴계선생의 효수가 일고」(신기형, 『문경』 25, 중앙대, 1968), 「퇴계 시가문학 연구」(이가원, 『퇴계학연구』, 퇴계선생사백주년기념사업회, 1972) 「퇴계의 금보가 연구」(서원섭, 『한국의 철학』 3, 경북대 퇴계연구소, 1975), 「퇴계의 시가문학」(서원섭, 『한국의 철학』 6 1977) 「퇴계의 낙빈가 연구」(서원섭, 『퇴계학연구』 5, 1978), 「퇴계가사의 사상적 고찰」(김기탁, 『영남어문학』 6, 영남어문학회, 1979), 「퇴계의 상저가 연구」(서원섭 『퇴계학연구』 6, 1979) 등이 있다

의 완성에 목표를 두었던 그의 생애로 볼 때, 퇴계에게는 오직 도산십이곡이 있을 뿐이라고 하였다⁶⁶⁾

퇴계 시가를 어떠한 범주의 문학으로 부를 것인가에 대한 논의도 있었다. 조운제 선생은 당쟁하의 明哲保身과 致仕客의 閒適에서 형성되어 조화·영원·절로절로와 같은 자연의 일반미를 내용으로 하는 시가를 '강호가도'라 부르고 농암 이현보가 이를 唱導했는데, 퇴계가 농암의 영향을 다분히 입어 도산십이곡이 나오게 된 것으로 본 바 있다⁶⁷⁾ 그를 이어 江湖歌道の 특질을 규명하고자 한 최진원 교수의 노력에 힘입어⁶⁸⁾ 한 동안 학계에서는 퇴계 국문시가의 내용을 자연미의 발견으로 보고, '강호가도'라는 문학범주 안에서 이해하려는 경향이 있어 왔다. 또 정규복 교수에 의해 '醇正文學'으로써 퇴계의 시가가 연구되기도 하였다⁶⁹⁾ 정규복 교수는 조운제 선생이 성정의 바른데서 발하는 것, 즉 邪氣없이 순결한 마음에서 우러나온 어부거나 송강의 가사를 순정문학이라 본 것에 따라 퇴계의 순정문학을 논한 바 있다. 말하자면 퇴계는 유가적 가치기준에 의해 인격·사상의 노숙기에 들어서서 '순정문학'을 제시하고 동시에 그같은 시가관에 의해 도산십이곡을 짓게 된 것이지만, 그의 순정문학도 당시 사회라는 역사적 배경과 그의 본래적인 泉石膏肓 및 도연명과⁷⁰⁾ 이현보의 전원풍에서 영향을 입어 마침내 '전원문학'으로 구체화되었다고 한다⁷¹⁾ 정 교수가 말한 순정문학이란 용어는 강호가도의 내용이 지닌 도덕적 특질을 강조한 표현으로 보이고 강호가도의 지역성을 보다 명확히 하기 위한 표현으로 다시 '전원문학'이란 용어를 사용한 것으로 이해된다⁷²⁾ 퇴계의 시가문학을 '강호가도', '순정문학', '전원문학' 등으로 칭해 오던 것이 근년에 들어와 손오규 박사에 의해 여과·정리되어 '山水文學'으로 탈바꿈하게 된다. 손오규는 그의 논저에서 "산수는 자연의 일부이지만 고전문학에서는 자연과 동일한 의미로 사용되었다. 그 외 자연을 가리키는 말로 江湖나 江海, 山林 등도 사용되었지만 그

66) 퇴계의 가사로 보지 않는 이동영 교수의 연구로는 『가사문학논고』(형설출판사, 1979), 『주세붕과 도덕가』(『국어국문학』 84호, 국어국문학회, 1980), 『금보가의 작자에 대하여』(『한국문학논총』 제4집, 한국문학회, 1981), 『퇴계의 歌辭所作說 辨正』(『한국문학론』 제5호, 한국문학회, 1982) 등이 있다. 강전섭 교수는 낙빈가를 조선 후기 작품으로 보았다(『낙빈가에 대하여』, 『한국가사문학의 연구』, 형설출판사, 1974)

67) 『한국문학사』, 조운제, 동국문화사, 1949

68) 『국문학과 자연』, 최진원, 성균관대 출판부, 1977

69) 『퇴계와 醇正文學』, 丁奎福 『퇴계학보』 제19호, 1978

70) 『퇴계문학과 도연명』(정규복, 『퇴계학연구』 제9집, 단국대학교 퇴계학연구소, 1995)에는 퇴계 문학관 속에 수용된 도연명의 자연과 인간의 합일정신을 밝히고 和陶詩에 나타난 도연명 수용양상을 고찰하여 퇴계문학의 醇正性을 확인하고 있다

71) 또한 퇴계의 순정문학은 당시 그의 높은 성리론과 함께 당시 문학계의 표본이 되어 자연미를 일층 심화한 일군의 강호가도에 적지 않은 영향을 끼쳤다고 한다

72) 사실 歌道라는 용어의 개념의 출처가 확실치 못한 부분이 있고, 또 그 적용범위도 분명치 못한 구석이 없지 않기 때문에 다른 용어로 대치하고자 하는 경향이 생겨나게 된 것이 아닌가 한다

중에서도 산수가 대표적이라고 하겠다 따라서 원래 산수문학은 유학을 사상적 배경으로 하며 중국 劉宋 때 謝靈運에 의하여 발생한 일종의 문학유파지만, 본고에서는 자연을 소재로 삼아 산수애호의 정신에 입각하여 산수미를 형상화한 시가와 문학작품을 의미하며 江湖歌道類는 물론, 성리학적 이념을 자연미로 형상화한 작품까지도 포함시키고자 한다⁷³⁾”고 하였듯이, 산수문학에 대한 개념규정이 매우 포괄적으로 진행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그는 이어서 퇴계의 山水觀을 요약하여 “擬構的인 세계나 혹은 관념상의 이상세계를 상상하지 않고 어디까지나 인공이 가해지지 않고 오로지 자연의 이법에 따라 본래의 모습을 지니고 있는 실재하는 산수를 아름다움의 대상으로 인식하고 그 속에서 미를 발견하였다”고 하였다 또한 “퇴계는 산수미를 가치로서 인식하기에 산수의 미를 묘사함에 있어서 形似에 얽매이지 아니하고 오직 정신의 세계에서 山水景物을 묘사하므로, 어떤 자연물을 노래한 시도 詠物的 차원이 아니라 그 배경이 되고 있는 산수의 集中으로 묘사되어지는 것이다 즉 퇴계는 대상의 形象이 주는 감각적 구속에서 벗어나 直觀과 想像에 의하여 정신적 가치와 내용미를 발견하여 시의 意境을 중요시 하게 되니 形似를 최대한으로 억제하여 집중으로 나타나게 되고 이 집중은 퇴계시의 品格을 결정하는 요인이 된다”고 하였다⁷⁴⁾

손오규에 의해 본격적으로 사용된 산수문학에 대해 최웅권은 이견을 보여 ‘산수전원 문학’으로 부를 것을 제안하였다 그는 “시골에 몸을 묻고 있었으나 현실에는 계속 집념하면서 자연을 소재로 산수전원의 경치를 미적으로 드러내면서 작가의 그 어떤 정감이나 이념을 표현한 조선조 15-17세기에 이르는 일군의 문인들의 작품을 산수전원 문학이라고 한다⁷⁵⁾”고 했다 최웅권의 주장은 역사적 개념으로 산수전원문학을 규정하자는 취지의 발언이다 퇴계의 문학을 여러 가지 용어로 범주화하는 것이 그의 문학세계를 다양하게 이해하는 데 도움을 준다면 환영할 일이나 그렇지 않고 불필요한 혼선을 야기시킨다면 바람직하지 않다고 본다 단지

73) 「퇴계의 산수문학 연구」, 손오규, 성균관대 대학원 박사논문, 1990

74) 『퇴계의 산수문학』, 손오규 부산대출판부 1994

75) 「조선조 산수전원 문학개념에 대한 일고찰」, 최웅권, 『한국학논집』 제26집, 한양대한국학연구소, 1995 논문의 저자는 역대 문학에 나타난 자연관을 개괄하기도 하였다 즉 상고시대에는 작가가 자연에 묻혀 살며 몸소 그 미를 이해하여 노래하지 못했고, 어느 한 순간 자연의 특성을 문학에 활용하였기에 조선조 시가문학에서와 같이 작가가 뚜렷한 의식을 가지고 자연의 아름다움을 발견하고 노래할 수 없었다는 것이다 신화시대의 자연은 자연현상 자체가 아니라 인격화된 자연력이었으며, 고려조의 작품도 자연을 표현한 것이 없다고 했다 청산·관동·죽계별곡도 자연을 심화시키지 못하고 단순히 자연에 의탁하였으며(청산), 자연을 직접적인 대상으로 했지만 산명 지명 등 여러 서경을 나열하였을 뿐(관동·죽계)이었다고 한다 즉 자연은 아름다운 객관으로 존재할 뿐이었지 아직 불타는 생명의 약동이 보이지 않는다고 했다 그리고 정지상이나 최치원은 작품(한시)을 통해 완전한 자연을 소재로 작자의 정감이나 이념을 표현했지만, 조선조처럼 유파를 형성하지 못하였고 향리에 귀의해서 전원예 의탁하여 자연을 노래한 것이 아니었다고 보았다

이문제는 퇴계라는 한 사람의 작가에 해당되는 것이 아닐 것으로 생각한다. 이를 위해서는 기존의 국문학사나 한문학사에서 문학의 범주를 획정한 용어들을 재검토하는 일이 선결되어야 할 것이다.

5

다음은 퇴계가 문예를 어떻게 인식하였는가에 대한 검토이다.

퇴계의 문예인식을 어떻게 이해할 것인가에 대한 논의도 연구자들 사이에 다양한 관점을 보여주고 있다. 퇴계의 문학관에 대한 고찰은 초기 연구자들 사이에서 부분적으로 검토된 바 있는데, 1975년 임형택 교수가 16세기 사림파의 문예의식을 구명한 논고가 발표되면서 본격화되었다.

임형택 교수는 퇴계가 “유가의 의미는 스스로 구분되니, 문예에 공교한 것도 유가의 일이 아니며, 과거에 급제하는 것도 유가의 일이 아니다”(儒家意味自別, 工文藝非儒也, 取科第非儒也)라 하여 문예를 이단시한 것처럼 보이지만, 퇴계의 의도는 詞章 위주, 문예에 몰두하는 태도를 반대한 것이지 문예 자체를 거부한 것은 아니라고 보았다. 그래서 퇴계는 시의 폐단은 시 자체에서 오는 것이 아니라 시하는 사람들이 잘못된 때문(詩不誤人人不誤)이며, 흥이 나고 정에 맞으면 시을기를 그만 둘 수 없다(興來情適已難禁)고 말했으며, 뿐만 아니라 퇴계는 詩作을 평생 자신의 생활의 일부로 삼았고(遇景值興, 不可無詩), 문학을 인격수양의 수단(學文所以正心)으로 보기까지 했다는 것이다. 따라서 임 교수는 퇴계에게 있어 문학은 대단한 의미를 갖는 것이라고 했다.⁷⁶⁾

후속된 연구는 조동일 교수에 의해 이루어졌다. 조 교수는 먼저 퇴계의 사상이 창조적이라기보다 의고적인 방향에서 모색되어, 理는 氣보다 선행하며 스스로 발할 수 있으므로 대립은 해소되고 도의의 근본이 구현된다는 이상주의를 설정하여 도의의 질서를 불변의 것이라고 설명하는 데 이르렀다고 요약했다. 그러나 퇴계의 ‘道義의 근본을 구현하는 문학’은 物我的 간격과 內外, 精粗의 구분이 없어지는 상태를 향해 마음을 움직이게 하므로 形氣로써 살아가고자 하는 사람들은 바라기 어렵고 감동을 느끼기 어려운 것이며, 氣의 대립적 운동으로 전개되는 현실의 문제를 도외시한 것이라 단정하였다.⁷⁷⁾ 퇴계의 문예의식을 이기론과 연계하여 논정

76) 「16세기 사림파의 문예의식」, 임형택, 『한국학논집』 3, 계명대 한국학연구소, 1975

77) 「이황」, 조동일, 『한국문학사상사론』, 지식산업사, 1978. 이어서 조 교수는 퇴계는 사상사에서 참으로 중요한 위치를 차지한다고 할 수 있지만 퇴계를 살피서 사상의 전통을 알 수 있다고 믿고 그 연구에만 노력을 집중하는 것은 분명히 한쪽에 치우친 처사이어서, 문학사상사의 경우에도 그 폭과 변화를 이해하는 데 장애가 된다고 지적하였다.

한 조 교수의 관점은 퇴계문학관의 비현실성을 지적한 것으로 이해된다

崔信浩 교수는 퇴계와 율곡의 문학사상을 비교한 논작을 발표한 바 있는데, 현실측과 이상측이라는 준거를 가지고 퇴계의 문학관을 검토하였다 사람의 마음이 지향하는 바에 따라 철학이나 문학의 방향축이 달라진다고 보고, 상향축을 존중하는 이는 理法論者이고 하향축을 존중하는 이는 현실론자 또는 情感論者로 보는 관점을 취했다 도학자들은 모두 이법론자들인데, 그 중에 현실쪽에서 이법을 본 사람을 이상주의론적 도학자로 이법쪽에서 현실을 본 사람을 현실주의론적 도학자로 부를 수 있다고 하였다⁷⁸⁾ 최 교수는 퇴계가 현실쪽에서 이법을 본 이상주의론적 도학자로 보았다 그는 다시 理를 지향하면 이상주의 내지는 이법론적 문학형태가 되고 氣를 지향하면 정감 내지 현실인식의 문학형태가 되는 바, 퇴계는 主理論者로 문학에서 理法論이 존중되고 氣質과 人心과 七情을 바탕으로 한 情感論은 소홀하게 되었다고 한다 왜냐하면 이법론자들은 처음부터 인심의 발현이나 칠정의 발현인 진솔한 인간적인 정감은 중시하지 않기 때문이라는 것이다⁷⁹⁾

최 교수는 또 다른 논고에서 마음의 향함인 志의 문제를 가지고 퇴계의 문학관을 살폈다 그는 퇴계의 지는 모든 길을 차단하고 한 길로만 터놓았는데, 그것은 경전을 통해 성인을 배움으로써 도를 터득하는 것이라 한다 따라서 퇴계의 言志詩는⁸⁰⁾ 경전을 배우는 志學과 志學을 통해 도에 이르는 志道の 정신에서 나온 것으로 퇴계의 문학 또한 이러한 범주를 벗어날 수 없다고 했다 “遏人欲, 存天理”로 요약되는 퇴계의 心學이나 心性論도 지도와 구도의 정신에서 말미암은 것이라 한다 퇴계의 이러한 심성은 그의 생활철학을 바꾸어 놓아 動보다 靜을 顯보다 隱을 世俗보다 山水自然을 더 좋아하게 하였고, 이같은 志가 곧 그의 문학사상이 되었다고 한다 퇴계는 ‘詩本於性情’이라 하여 情 앞에 性을 여과장치로 만들어 놓고 情에 混雜되어 있는 不純物이 제거되는 효과를 거두고자 했으므로 퇴계가 지은 性情의 시는 정을 그대로 쏟아 놓는 시와 다르다고 하였다⁸¹⁾ 결론적으로 퇴계의

78) 최 교수는 理法詩란 현실적 嗜慾을 떠나버린 高朗明澈한 인격의 산물로 인간의 정감을 그대로 발현한 것이 아니라 어떤 틀에 의해서 여과하거나 어떤 절대 좌표를 향해서 완성해 가는 문학형태라 했다

79) 「退 栗문학사상의 기본방향」-이상측과 현실측 崔信浩, 제2회 동양문화국제학술회의 논문집 『주자학과 한국유학』, 성균관대 대동문화연구원, 1980 따라서 최 교수는 情感文學이 야말로 세상의 승강에 따른 여러 가지 체험과 진솔한 인간의 정감을 담을 수 있는 문학형태라고 하였다

80) 言志詩는 왕소 교수의 『퇴계시학』에도 거론된 바 있다

81) 최 교수는 「陶山十二曲跋」의 보인 퇴계의 논점이 二分法으로 되어 있다고 하여, 矜豪放蕩·褻慢戲狎은 정련되지 못한 정감의 소산이므로 거부되었고 溫柔敦厚는 『禮記』에 나오는 至純한 시정신이였기에 긍정되었으며, 「書漁父歌後」에서는 淫蕩과 眞聲이 對를 이루었는데 霏花店 제곡은 淫蕩하므로 버려야 하고 漁父歌는 眞聲이므로 취해야 하는 것으로 된다고 보았다 또한 퇴계의 言志詩는 성인의 가르침을 배우고 도를 터득해가는 志學 志道の 감흥과 즐거움 天理의 구현물인 천지만물과 습득되는 즐거움을 읊었으며 비록 언지시가 아니라 해도 대부분 산수자연에서 받은 감흥을 읊은 것이었다고 했다

문학은 情感이 아니라 理法 내지 性情의 문학을 존중하는 특성을 갖게 되었다고 하여, 앞서 이루어진 자신의 주장을 재확인하였다⁸²⁾

퇴계의 문학관을 보다 적극적으로 해명하고자 한 연구자는 이원주 교수이다 이 교수는 "우리들은 혹시 그 방대한 다른 유산을 간과한 채 시조의 주제를 넘겨 짚고 가사의 내용을 해설했던 것은 아닐까? 어구나 가사 작품은 선생이 지은 것이라 단정하기 어렵고 설혹 선생이 지었다 하더라도 전승하는 동안 많은 訛脫이 생기고 이본이 생겼을 텐데 그 가사들을 선생이 지은 것이라 하여 논란의 대상으로 삼음이 선생께 죄스러운 일은 아닐까?"라 하여, 퇴계문학에 대한 선행 연구행태에 강한 불만을 토로하고, 국문시가 위주의 논의구조를 청산해야 함을 역설하였다 말하자면 연구시야를 넓혀 퇴계가 남긴 저술전반에 대한 검토의 필요성을 제기한 것이다

이 교수가 퇴계집을 通觀하여 터득한 퇴계 문학관의 요체는 '立言垂後의 정신' 그것이었다 그는 퇴계의 구도는 은거가 아니라 立言垂後라는 뚜렷한 목적을 가졌던 것이고 퇴거하여 그 목적을 달성하므로써 계기적으로 이루어졌던 進과 退가 다 '有爲'의 의의를 가진다고 본다 '立言'은 그 자체가 문학·광의의 문학의 힘을 빌리지 않을 수 없기에 문학은 창작되어야 하고, 창작된 작품은 正心の 효용을 가지기에 문학은 소홀히 할 수 없게 되며, 입언하는 주체가 도학자일 때 이미 문학과 학문은 相須的인 관계에 놓이게 되어 문장은 公器로 이해된다고 보는 것이다⁸³⁾ 또한 이 교수는 퇴계문학의 특질은 規戒와 勸善에 있으며, 誇張과 駁雜을 배격하여 溫柔敦厚를 중시하는데 있다 하고⁸⁴⁾, 求道の 문학과 成道の 문학으로 나누어 그 내용을 정리하였다 즉 유학자의 이상인 '성도의 세계'는 인욕이 없어지고 천리가 그대로 유행하는 세계인데, '花發巖崖'의 시가 바로 그 같은 세계를 읊은 것으로 유가문학 특히 도학자 문학의 극치를 보여준다고 하였다 따라서 「도산십이곡」이나 「도산잡영」 등은 단순한 賞自然의 문학이 아니고, 도에 나아갈 길을 제시하고 그 세계의 즐거움을 노래한 도학자 문학의 또 하나의 극치로 보아야 한다고 하였다⁸⁵⁾ 이 교수의 논리전개를 들여다보면, 평범한 도학자의 형상이 아닌 성

82) 「퇴계 문학관에 있어서의 志의 문제」 崔信浩 『성심어문논집』 제16호, 성심여대, 1994
최 교수는 그러나 조선 후기 문학사의 특성은 性에서 情으로 바뀌게 되는데, 이는 志가 情에 있음을 말하는 것으로 대단한 座標의 변동을 가져오게 되었다고 하였다

83) 나아가 유학자의 문학은 道文이 相須관계를 이루기 때문에 퇴계는 名利的 욕망이 끼어 든 문장가의 문학과 場屋문학을 비판하였다고 한다

84) 아울러 퇴계 사상의 바탕엔 인성의 선이 전제되어 있는 바, 그것은 理優位의 세계며 대립의 세계가 아니고 조화의 세계로서 그 性善의 또 다른 표현이 작가·작품의 상대적인 가치를 인정하는 成人之美라 하였다

85) 「퇴계선생의 문학관」 이원주, 『한국학논집』 8, 계명대 한국학연구소, 1981 (「도학과문학」, 이원주 『한국문학연구입문』, 지식산업사, 1982) 이 교수는 퇴계가 樂山樂水 속에서 道義를 즐기고 心性을 기르는 즐거움을 갖고 시조·칠언 사언·오언 등으로 다채롭게 표현한 도산십이곡과 도산잡영을 道體가 구현되고 文質彬彬한 '성인의 문학'으로 평가하였다

인의 경지에 도달한 聖者로 퇴계를 받아들이고 있음을 알게 된다 요컨대 이 교수의 관점은 퇴계의 문학이 終始로 求道에서 成道로 나아간 道體認의 궤적으로 설명되어지고 있다는 점이 주목된다 할 것이다⁸⁶⁾

金周漢 교수의 퇴계문학비평과 관련한 일련의 연구업적들은 그 시각의 참신성으로 인해 우리의 주목을 끌기에 충분하다 김 교수는 일찍이 주자와 퇴계의 문학관을 정밀히 비교·검토한 논문으로 박사학위를 받은 바⁸⁷⁾ 있거니와 퇴계의 문예인식을 가장 체계적으로 정리한 전문가이다 그는 퇴계가 坐馳外慕하고 虛飾徇外하는 口耳之學, 爲人之學을 배격하고 存養省察하고 近裏着工하는 義理之學, 爲己之學을 지향했으며, 이를 위해 『心經』을 신명처럼 받들면서 심학공부에 몰두했던 것으로 이해했다 그러나 '近裏着工' 곧 '向心, 向內, 向裏面'의 공부인 心學에만 너무 치중하다 보면 한 편에 치우치는 병폐가 있을 것을 염려하여 向心力을 제어할 수 있는 방편으로 문학을 강조하게 되었다고 한다 왜냐하면 문학은 대상을 향한 노력, 즉 離心力을 필요로 하는데, 대상이心に 자극을 줄 때 그것을 어떻게 처리해야 하는가 하는 것, 역시 爲己之學에서도 중요한 문제라고 생각했기 때문이라는 것이다 퇴계가 『주자서절요』를 편찬하면서 주자의 학문내용 중 精深·緊切하지 않은 歇後語와 閒酬酢을 뽑아 넣은 이유도 離心力과 向心力의 평형을 유지하기 위한 노력이었다고 본다 퇴계는 七情을 외물이 사람의 形氣를 저촉·자극할 때 心中에서 반응하여 나타나는 것인데, 이는 단순한 '緣境而出'에 불과할 뿐으로 存養省察하는 의리차원의 노력이 가해져야 眞정인 道心(선)이 될 수 있다고 한 바 있다 김교수는 이러한 緣境論을 문학으로 이끌어와 "학자의 시문과 시문가의 시문의 차이는 후자가 주로 '緣境而出'하는 情感의 형상화라면 전자는 '存省의 과정을 경과한 뒤의 것'을 구상화한 것"이라 본다⁸⁸⁾ 그리하여 퇴계가 지나친 向外·離心하는 緣境차원의 감동만을 추구하는 문학에서 向內·向心の 문학으로의 방향 전환을 주장한 것이라 했다 퇴계가 문장을 지움에 常格과 格例을 위주로 하지 않고 지나치게 奇格·詭論을 운용하는 好奇自用·好奇尙異의 폐단을 지적하고, 學問意思보다는 詩人趣味에 경도되어 마음의 主宰力이 상실된 詩作活動을 비판한 것은 모두 연경차원을 의리차원으로 중화시키기 위한 것이라는 말이다 뿐만 아니라 퇴계는 傳後할 수 있는 문장(立言)을 지어야 한다는 문장관을 지니고 있었기에

86) 앞서 조동일 교수가 지적한 것처럼 필자 역시 形氣로써 살아가고 있는 인간에 지나지 않기에 이 교수의 高談峻論이 필자를 여전히 高遠한 상념의 세계에서 방황하게 만든다

87) 「中韓理學家之文學觀及其影響」, 金周漢, 中國文化大學 中文研究所 박사학위논문, 1985

88) 이 점은 앞서 최신희 교수의 논고에서 말한 情感論과 연결될 수 있는 여지가 있으나, 김 교수의 관점과 최 교수의 관점은 다소 차이가 드러난다 최 교수는 퇴계를 이상주의론적 이법론자로 보아 대체로 정감론을 부정한 것으로 파악했다 그러나 김 교수는 퇴계가 다만 緣境而出하는 정감 편향을 경계한 것이지 정감 자체까지 모두 부정한 것으로 보지 않은 것 같다

문장수련을 통해 '시문사체의 理'를 파악한 기반 위에서 이루어진 溫柔敦厚한 글쓰기를 중시하였으며 冗長無實하거나 過激不恭한 표현을 일삼는 緣境차원의 글쓰기를 비판하고, 離心力의 지나친 발동으로 시의 내용이 放誕·龐雜한데 흐르거나 인격에 맞지 않는 虛誇·過高를 경계한 것이라 하였다⁸⁹⁾ 요컨대 퇴계문학비평의 비평사상의 가치는 바로 '向心の 文學'을 강조하여 도학과 문학을 조화시키려는 태도를 보여주었다는 데 있다고 하였다⁹⁰⁾ 한편 주자의 『武夷權歌』 수용을 분석한 논고에서 김 교수는 퇴계가 「무이도가」를 분석하면서 '작자의 입장에서 작자의도를 파악하려는 태도'를 보여 준 사실에 주목하였다 김 교수는 당시에 논란이 되었던 「무이도가」 第九曲을 「學問入道次第」로 보는 註家の 견해나 註意에 충실했던 김인후의 견해, 그리고 註家の 「牽合之說」에 이끌린 기대승의 9곡을 究竟處로 보는 견해 등을 긍정하지 않고, '경물을 보고 느낀 바를 적은 것'(景致之語, 本只爲景物而設)이라 한 것은 작자(주자)가 그렇게 拘拘한 분이 아니라고 믿은 때문이라는 것이다⁹¹⁾

89) 김 교수는 퇴계가 “지나친 離心力의 발동으로 日常性에 빠져버린 문화를 向心力의 각성과 保持로 중화시켜 문화를 匡正하고자 하여 世道挽回를 자임했다”고 하면서, “유가의 학문으로 인간성의 회복을 시도하는 터라 자연히 문학도 문학가의 문학, 離心の 문학보단, 학자의 문학, 向心の 문학에 더욱 무게를 두었던 것이며, 이런 것은 퇴계 자신이 견지하고 있던 『憂患哲學』에서 더욱 존재가치를 인정받게 된다”고 하였다 鄭堯一의 「퇴계의 문학론」(『퇴계학연구』 제4호, 단국대 퇴계학연구소, 1990)에서도 『憂患哲學』에 유의한 관점이 드러나고 있다 정 교수는 퇴계는 시가작품에서 자연을 노래하면서 동시에 현실과 인생을 노래했다고 하면서, 자연을 노래함이 단순히 賞自然의 단계만 그쳐서도 안되기에 그 즐거움 중에서도 언제나 현실을 염려하였으며 성현의 도를 따르고자 하는 학문의 어려움을 질실히 느끼는 데서 오는 근심과 그 학문의 즐거움이 『樂中有憂, 憂中有樂』의 정서로 나타나게 되었다고 하였다

90) 『李退溪文學批評小攷』 김주한, 『안동문화』 제2집, 안동대학 안동문화연구소, 1981 김 교수는 이 밖에도 주자계통의 유자가 공통으로 숭상하던 평어가 理致·理趣를 담은 것이었고 이 평어를 구성하는 글자가 仲·淡·蕭·散·簡·遠 등인데, 이것이 2자에서 4자로 복합되어서 사용되었는 바, 仲淡蕭散은 모순·대립 갈등·충돌·상극이 통일·지양되는 차원의미를 추구하는 離·向 自在한 조화의 덩어리를 말하는 것으로 天理를 체인하는 자리라고 논정한 「論仲淡蕭散」(『안동문화』 창간호, 안동대 안동문화연구소, 1980)을 위시해서, 퇴계의 문학관과 문학비평을 주자와 비교하여 고찰한 「퇴계와 주자의 문학비평 소고」(守愚齋 崔正錫博士回甲紀念論叢, 1984), 「朱子和 退溪의文學觀」(中文)(『퇴계학보』 제56집, 1987), 퇴계 시문에 담겨 있는 樓臺亭樹名, 山川名, 地名, 그리고 이런 자연물과의 감발용 등에서 생기는 정신경계를 규정하는 것을 命名意識이라 보고, 그 특징을 고찰하여, 寬展樂易의 포용성, 價値正視의 낙관성, 無可無不可의 중용성으로 수렴한 「李退溪詩文 中の 命名意識」(『퇴계학보』 67, 1990) 등의 논문을 학계에 보고한 바 있다

91) 「퇴계의 주자시 이해」-武夷權歌를 중심으로 『영남어문학』 제10집, 1983 또한 김주한은 퇴계가 『주자서절요』에서 心學에 있어 末이라 볼 수 있는 歇後語를 삼입했던 태도로 보면, 퇴계는 『本末兼學』의 원만한 사고를 하고 있었고 末도 『道의 一端』이라도 보았기 때문인데 一端은 곧 分殊이므로 도학적 理一分殊論이 바로 퇴계로 하여금 註意를 전적으로 찬성하지 않게 한 이유라고 하였다 그러나 퇴계는 작자의 편에서만 詩評을 하는 게 아니고 독자의 편에서도 시의 공용을 인가하고 있어, 『作詩 知詩·用詩』 세 방면으로 관찰하는 원만한 비평태도를 유지했다고 한다

퇴계의 문학사상을 종래의 논의방식과는 차원을 달리하여 분석한 李魯亨 교수의 논문은 매우 이채롭다 그는 퇴계의 사상을 당대 사회현실의 반영물로서 해석해내는 작업이⁹²⁾ 필요하다고 문제를 제기하고, 문학사상에 대한 논의도 이같은 관점에서 접근해 볼 필요가 있다고 하였다 이어지는 담론에서 이 교수는 퇴계의 이기론은 당시 사회상황을 반영한 사상운동으로 볼 때, 사림세력을 理로 설정하여 善의 가치를 내포한 세력으로 규정하고 훈척세력을 惡한 氣의 집단으로 규정한다면 이 두 집단의 현실적 투쟁관계를 바로 理氣의 근원적 투쟁관계로 설정해 볼 수 있다고 했다 그런데 퇴계는 투쟁의 향배가 理弱氣強, 사림의 약세와 훈척의 득세로 진행되는 불리한 국면을 타개하기 위해서 理發說을 주창하여 사림세력의 존재와 가치에 대한 樂觀論을 제시한 것이라 하였다⁹³⁾ 문학사상도 이와 마찬가지로 氣 일방의 詞章으로 혼란을 야기하던 당대의 비사회적 문풍속에서 理와 敬의 道學文學을 이론과 창작의 양 측면에서 철저히 주장하고 실행하여 대사회적 목적을 지향했다고 이해하였다 따라서 퇴계의 문학사상은 단순히 개인의 심성수양만을 위한 것이 아니라 정치사회적 비판과 실천의 이념이며, 이른바 사회현실을 비판하고 이를 극복하기 위한 일종의 문학적 운동으로서 성격을 지닌 것으로 파악하였다⁹⁴⁾

金光厚 교수도 퇴계의 문예인식에 대해 일정한 견해를 보여 준 바 있는데 그는 퇴계의 誠敬철학과 문학인식의 관련성을 추적하였다 퇴계는 敬은 誠으로 가는 길이라 하여 마음의 體를 靜으로 마음의 用을 動으로 파악하고, 정할 때 存養하고 동할 때 省察하여 聖人の 경지에 도달하고자 했다고 보았다 이어지는 논고에서 김 교수는 퇴계의 문학인식은 載道論의이지만 일반 재도론자와는 달리 문학으로 心性을 닦을 수 있다고 하여 '문학이 마음을 해친다'는 주장을 반박한 것으로 보았다 퇴계는 문학과 철학의 관계를 相補의인 것으로 인식하여, 구도자인 '誠之者'는 '誠者'가 될 수 있는데 문학이 여기에 봉사한다고 생각했다고 한다 특히 자연을

92) 17세기 퇴계학과 이기심성론의 정치적 변용을 다룬 薛錫圭의 「拙齋 柳元之의 理氣心性論 辨說과 정치적 입장」(『조선사연구』 6, 1997), 「活齋 李渠의 理氣心性論 辨說과 정치적 입장」(『朝鮮時代史學報』 4, 조선시대사학회 1998)과 퇴계의 理善氣惡, 理實氣賤, 理尊氣卑 등과 같은 표현을 바로 대립된 두 집단의 상극적 국면을 극복하는 주장으로 보고, 퇴계의 理氣分屬論이 士禍를 극복하려는 성격이 있다고 본 李性源의 「李滉, 李珥 理氣論의 政治社會的 性格에 관한 연구」(성신여대 대학원 박사논문, 1999) 등도 정치역사적, 정치사회적인 측면에서 퇴계학파의 이기론을 검토한 논문으로 참고가 된다

93) 이 교수는 퇴계가 이러한 일련의 이론체계를 깨닫고 실천하는 행위로써 敬을 부단히 강조하였다고 보고, 퇴계의 철학사상과 문학사상은 정치·사회를 급진적으로 비판·극복하고자 하는 측면이 미흡해 보이는데, 그 이유는 당대의 위태로운 사회형편과 사상의 핵심적 근거인 理와 敬의 포용성과 점진성에 있었으며 그러나 오히려 이 점진성을 통해서 합리적인 역사기능을 수행할 수 있었다고 보고 있다

94) 「퇴계 철학사상과 문학사상의 사회적 의미」, 李魯亨 『한국의 철학』 제16호, 경북대 퇴계연구소 1988 이 교수의 논고는 관점의 틀을 새롭게 제시했다는 의의는 있지만 구체적인 검증과정이 결여되어 있어 논리적 정합성이 미약하다고 본다

통해 이러한 관점을 문학으로 표현하기 위해 幽人이라는 대표적 구도자를 소재로 동원하였으니, 이는 퇴계가 성경철학을 바탕으로 성인이 되기 위한 부단한 방법론적 모색을 하고 있었다는 중요한 근거라 하겠다⁹⁵⁾

이상의 논의를 필자의 상상력을 동원하여 간명하게 요약한다면 다음과 같다. 조선조 지식인들의 사유활동 공간을, 政治社會的인 차원, 儒敎理學的인 차원, 文學藝術的 차원으로 대별하고, 2차 혹은 3차가 상호 우위·열등의 관계를 보일 수 있다는 가정 하에 그 主(중심)와 從(주변)의 조합관계를 추론해 볼 수 있겠다 예컨대 ①정치사회>유교이학, ②정치사회>문학예술, ③유교이학>문학예술, ④유교이학>정치사회, ⑤문학예술>정치사회, ⑥문학예술>유교이학, ⑦정치사회>유교이학>문학예술, ⑧정치사회>문학예술, ⑨유교이학>문학예술>정치사회, ⑩유교이학>정치사회>문학예술, ⑪문학예술>정치사회>유교이학, ⑫문학예술>유교이학>정치사회 등이 그것이다 논리적으로는 이같은 12가지의 주종관계가 성립될 수 있는데, 지금까지 퇴계의 사유활동을 검토한 연구들은 대부분 ③'유교이학>문학예술'이나 ④'유교이학>정치사회', 혹은 ⑩'유교이학>정치사회>문학예술', ⑨'유교이학>문학예술>정치사회' 등이 강조된 듯한 느낌이 있다 다만 앞서 살펴 본 이노형 교수의 논문은 예외인데, 그는 ①'정치사회>유교이학', ②'정치사회>문학예술', ⑦'정치사회>유교이학>문학예술'의 관점을 보여주고 있다 어떠한 논고에서도 문학예술을 중심으로 보지 않았다 따라서 퇴계의 문예인식은 철저히 유교이학 부문이나 정치사회 부문에 종속되어 있다는 결론에 도달하게 된다

종래의 논의들과는 차원을 달리하여, 이종호는 퇴계의 문예인식을 미학적 관점에서 접근해 들어 간 바 있다 아름다움(美)을 가치인식의 또 다른 표현으로 보고 그것이 퇴계의 사상체계와 어떻게 관련되어 있는지를 살폈다 그리하여 퇴계의 미학체계는 이른바 天人合一의 전통적 미학정신을 모색하고 성취하는 기반 위에서 전개되고 있으며, 이러한 정신은 그대로 퇴계의 의식세계를 관통하고 있다고 하였다 그러나 천인합일의 정신이 관념일변을 통해서만 형성되는 것이 아니라 1차적으로 퇴계에게 주어진 시대현실, 즉 정치사회적 상황과 생활의 터전인 거주공간이 그의 심미의식을 결정하는 조건이라 보았다 또한 이 천일합일의 심미이상을 구체적으로 표현하면, 인격미·자연미·문예미의 유가적 통일인데, 이 세가지 미의 차원은 모두 퇴계의 현실생활로부터 형성되고 추구되며 실천된다고 했다 퇴계의 심미인식은 수용자의 입장을 중시하여 공리성과 선택성을 강조한 점이 특징이고 유가의 심미이상이 절대적으로 작용하여 철저한 유가편향의 심미효과만 인정되고 있다고 한다 그런데 퇴계의 미학정신은 기본적으로 성리학적 관념론에서 유추된 것이기에 당대의 현실사회에서 전개되고 있던 기층민중의 미의식과는 일정한 거

95) 「퇴계의 誠敬철학과 문예인식」, 金光淳, 『동방한문학』 제10호, 동방한문학회, 1994

리를 유지할 수밖에 없었다고 보았다 퇴계의 시가문학이 지향하고 있는 청정채락한 분위기는 임격정이나 홍길동과 같은 군도들이 출몰하고 다수 농민들이 농토로부터 流離되는 사회현실과는 너무나 괴리되어 있어 그의 미학이 지닌 현실성을 논하는 데 일정한 한계가 있다고 보았다 다만 처참한 사회의 과정을 거치면서 당대 사회가 사대부층에게 요구하였던 인간형이 무엇이었던가를 생각해 보면, 왜곡된 인간형을 바로잡고 참다운 유자의 길을 가려 했던 퇴계의 인간중심주의적인 미학정신은 심각한 현실적 의의를 갖게 된다고 하였다⁹⁶⁾

이상의 논의에서 볼 수 있듯이 퇴계의 문예인식에 관한 그 간의 연구물들에서는 두드러진 쟁점사상이 발견되지 않는다 다만 연구자들의 문제의식과 접근방식에 있어 약간의 시각차가 엿 보일 따름이다⁹⁷⁾ 필자의 생각으로는 퇴계 문예인식의 성격을 보다 투명하게 파악하기 위해서는 퇴계이전과 이후 문인학자들의 그것을 비교하는 작업과 창작의 현장에서 퇴계의 문예인식이 어떻게 구현되고 있는지를 탐색하는 작업이 이어졌으면 한다

6

본론에서 검토한 퇴계 문학연구의 현실에 기초하여 퇴계 시를 중심으로 필자의 생각을 정리하면 다음과 같다

우리는 퇴계의 본색이 도학자였으므로 그의 문학작품이 '문학예술로서의 작품 고유의 내적 구조에 충실하기보다는 근엄한 도학적 설교로 시종할 것이다' 하는 선입견을 갖고 있다 아울러 퇴계를 존경하고 추종했던 후학들의 회상과 추억을 감동적으로 기술한 '老先生의 언행에 대한 이야기'를 듣고 나서 퇴계의 작품을 읽고 그 이야기의 진실을 확인하려 한다 우리들 앞에는 퇴계의 작품을 이해하는 여

96) 「退溪美學의 基本性格」上(이종호, 『퇴계학』창간호, 안동대 퇴계학연구소, 1989), 「퇴계미학의 기본성격」下(이종호, 『안동문화』 10, 안동대 안동문화연구소, 1989), 「退溪 美意識의 形成原理」(이종호, 『古典詩歌의 理論과 表象』, 林下崔珍源박사정년기념논문집, 1991) 등을 참조 저자는 퇴계미학의 성격을 온유둔후, 천인합일, 고담한 시적 경계와 성정미의 중시에 있다고 하고, 이는 퇴계가 이러한 자연미, 인격미, 문예미를 성리학적 문화의 틀 속에서 통일시키고자 한 노력의 결과라 하였다

97) 필자가 조사해 본 바로는 사실 최근 20여년간 국문학 관련 학회가 발간하는 정기간행물이나 전국규모 학술회의에서 퇴계의 문학을 토론한 예가 거의 없는 것으로 안다 한문학에 한해서 살펴보면 그 동안 실학파의 문예, 전이나 야담 등의 산문방면 등으로 연구인력이 집중되었기 때문일 것으로 보인다 그 결과 퇴계문학 관련 논문들이 대부분 『퇴계학보』나 3개 대학의 퇴계학 관련 연구소의 정기간행물에 실리는 추세가 굳어진 듯하다 앞으로 기대하는 바는 유관 전공자들이 모여 퇴계문학에서 주요하게 거론되는 용어의 개념, 내용 성격 등을 토론하는 자리가 있었으면 한다 또한 퇴계학 연구기관에서도 퇴계학을 총체적으로 다루기 보다 장기계획하에 전문영역별 학술회의를 개최하여 기존의 논의를 심화시켜 갔으면 한다

러 갈래의 길이 놓여 있다 그 속에는 전인들이 걸어갔던 길도 있다 그 길은 수백여 년이 지난 오늘에도 여전히 古色蒼然하다 전인들은 그들의 역사적 삶 속에서 퇴계의 작품을 보고 느꼈으며 그 느낌이 옳다고 믿었다 전인들의 신념에 찬 퇴계 이야기를 경청하는 것이 뒤에 태어난 자의 도리이다 다만 전인들의 말씀이 퇴계 문학을 이해하는 하나의 본보기는 될지언정 정당하고 유일한 방법으로 단정할 수는 없다 전인들의 말씀에는 소중한 진리가 담겨 있다 그러나 어떠한 진리나 믿음이건 시대성의 구속으로부터 자유로울 수 없다 시대성의 구속으로부터 나온 전인들의 진리가 때로 공시적 가치를 顯現할 수도 있으나, 그렇지 않고 한시적 가치에 그쳐 후대에는 전혀 통용되지 못하는 경우도 있다 따라서 전인들의 말씀을 본보기로 한다는 뜻은 바로 시대성의 구속으로부터 탈각된 말씀을 듣고자 함이지 墨守·盲從하자는 것이 아니다 시대성의 구속이란 주어진 역사단계에서 그 시대가 넘을 수 없는 체제나 이념으로부터의 구속이다 시대성의 구속이 가치 중립적 표현이므로 부정적으로 볼 필요는 없다 위기의 시대건 평화의 시대건 '있어야 할 것'과 '없어져야 할 것', 즉 당대인들이 규정하는 선과 악이 공존하기 마련이다 아무리 시대성의 제한을 받아 선·악이 갈등하고 투쟁하여 선이 승리하기도 하고 악이 승리하기도 하지만 결국 역사는 인간해방의 방향으로 진전되어왔다 선악의 갈등과 투쟁은 아직도 계속되고 있으며 그 진전방향은 지금도 그대로 유지되고 있다고 믿는다 같은 맥락에서 현재를 살아가는 우리 또한 주어진 시대성으로부터 자유롭지 못하다 그에 따라 퇴계학 연구도 우리 시대의 자기만족을 지향하지 않을 수 없다 왜 우리가 지금 이 자리에서 퇴계학을 말해야만 하는가? 尊賢事業을 위해서 혹은 단순한 好古趣味나 지식욕구를 채우기 위해 퇴계학을 일삼는 사람도 없지 않아 있을 것이다 그러나 이는 1차적 동기는 될지라도 궁극적 목표가 되어서는 안된다 과거는 현재를 위해 존재(以古爲今)한다 그러므로 과거의 퇴계학이 오늘을 위한 퇴계학이어야 의미가 있다 이 시대가 퇴계학을 말하는 이유는 퇴계의 성리설이 부활하여 우리에게 축복을 내려 줄 것으로 믿기 때문이 아니다 인간 퇴계를 만나서, 물질적 풍요와 정신적 빈곤으로 표현되는 世紀交替의 상황에서 '우리가 어떠한 마음과 행실을 가지고 살아야 인간다움을 상실하지 않을 수 있는지?', 또는 '어떻게 사는 것이 사람답게 사는 것인지?' 묻고, 그의 답변을 통해 우리의 일그러진 모습을 바르게 고쳐보자는 데 있다 우리가 퇴계의 문학을 살피는 이유도 有道者로서 퇴계가 지닌 풍채와 도량(風範神采), 곧 인격을 알기 위함이다 퇴계의 문학연구를 통해 어떻게 이같은 시대적 요구에 부응해갈 것인가? 이것이 당면한 우리의 과제이다 이러한 문제의식은 늘 깨어있는 정신으로 살아 있어야 한다 주어진 시대적 요구를 잊지 말고(勿忘) 그렇다고 빨리 해결하려고 조급해하지 않으며(勿助) 자신의 공부를 점점하는 가운데서 퇴계 연구의 현재성을 실현해 갈 수 있을 것이다

퇴계 문학 연구의 당면한 과제를 수행함에 있어 '活看'(유통성 있게 이리 저리 궁리하는 태도)과 '深玩'(깊이 있게 사물을 대하여 이해하려는 태도)하는 자세가 무엇보다도 중요하다⁹⁸⁾ 활간의 요령은 先入見과 先知識의 활동을 잠시 억제하고 발상의 지평을 넓혀 다면적으로 사고하는 데 있고, 심완의 요령은 개개의 발상가능한 측면을 보다 정밀하게 분석하고 검증하는 데 있다 활간이 수평적 사유공간을 확대하는데 주력한다면 심완은 수직적 사유공간을 심화하고자 힘쓴다 우리가 玄虛와 荒誕에 빠지지 않도록 전인들의 말씀에 유의해가면서 활간·심완하는 마음가짐으로 퇴계 작품을 마주하면, 퇴계의 문학도 새로운 생명력을 드러내게 될 것이다

퇴계는 시를 좋아하여(喜詩) 시를 알았을(知詩) 뿐 아니라 시를 즐겼기에(樂詩) 시에 대해 말할(論詩) 수 있었다 시를 좋아함은 그의 예술적 氣味(기질과 정서)인 形象思維에서 온 것이고 시를 안 것은 그의 도학적 氣味인 격물치지하는 理性思維가 움직인 탓이다 시를 즐기고 시를 논한 것은 詩學 方面에 溫故知新하고 法古創新하는 실천적 노력이 가져온, 自成一家에서 획득한 日常性의 표현이다 일상성의 획득(凡有感於情性者, 每發於詩)은 시작활동과 日用行事的 통일을 의미한다 이쯤되면 예술적 기미와 도학적 기미가 이미 交織되어 통일적으로 결합되어 있으므로 굳이 그 先後를 가릴 필요가 없다 그러므로 퇴계 시학을 검토함에 있어 예술적 기미와 도학적 기미라는 양자 가운데 어느 일방의 우위를 고집하여 다른 일방의 작용을 애써 약화시키려는 태도는 바람직스럽지 않다 심지어 퇴계의 모든 시문을 도학적 기미로만 재단하려는 교조적·재단적·도식적 시도는 더욱 위험하기까지 하다 만일 이같은 시도를 퇴계가 보았다면 아마도 '그대의 태도가 보는 이를 局束切蹙하게 만들어 寬展樂易할 맛이 없다'고 평했을런지 모를 일이다 비록 퇴계가 평생토록 도학적 내용을 강론하고 이를 굳세게 실천해 나간 분임에 이론의 여지가 없지만 또한 전형적인 도학자이기 이전에 七情을 지닌 하나의 인간이었음도 부인할 수 없다 인간퇴계는 어디에도 없고 보이는건 오직 도학퇴계라 했을 때, 우리는 '얻은 것은 도학이요 잃은 것은 퇴계이다'라고 선언해야 한다 어떤 이유로 해서 혹 인간퇴계를 잃어버렸다고 판단되었을 때, 마음을 비우고 그가 남긴 문학작품을 읽어간다면 인간퇴계의 본래면목을 추상해낼 수 있을 것이다 문학은 인생을 관념적이고 추상적으로 표출해내는 것이 아니라 지극히 형상적이고 정서적으로 드러내는 속성을 가지고 있기 때문이다 요컨대 퇴계의 형상을 無味乾燥하게 만들지 않기 위해서는 인간의 얼굴을 가진 퇴계의 도학을 생각했으면 한다 퇴계의 도학이 인간의 얼굴로 다가올 때, 비로소 퇴계 시가 지닌 아름다움이 드러나게 될 터이다 그리하여 퇴계의 국문시거나 한시를 대놓고 江湖詩歌(혹은

98) 活看과 '深玩'은 "此處最宜活看而深玩也"(『栗谷全書』9 「答朴和叔書」)라 한 栗谷의 말씀에서 취한 것이다

江湖歌道)나 道學詩라 하지 않고 운치있게 山水詩나 田園詩로 부르며 그 속에서 한 인간의 性情美와 대우주의 自然美를 동시에 포착해내는 즐거움을 향유하게 될 것이다 가령 퇴계의 시를 강호시가(강호가도)나 도학시라고 불러도 좋고 산수시나 전원시 혹은 다른 용어를 붙여도 큰 문제는 없다 그러나 강호시가(강호가도)나 도학시가 곧 산수시나 전원시와 같을 수는 없다 산수시나 전원시 속에 강호에서 노래한 도학자의 시가 있을 수는 있지만, 어떤 문학의 성격을 범주화하여 표지하는 말이나 용어로 강호시가(강호가도)나 도학시는 적당치 않은 듯하다 도학시는 그냥 도학적 내용을 담은 것으로 도학자가 쓴 시를 지칭할 따름이고, 강호시가나 강호가도는 일정정도 문예속성을 감안한 듯하지만 일반화해서 문학용어로 쓰기에는 너무 그 의미공간이 狹隘하다

퇴계의 산수전원시에서 도학적 기미를 드러내는 작품에 대해 생각해 본다 美를 추구하는 속성을 가진 문예라는 측면에서 접근해 보면, '以理入詩'란 도학적인 의리를 시 속에 끌어 들이는 것이다 그 중 理語를 사용하여 道理를 설명하기도 하는데, 이 경우 시는 형식(껴풀)만 남고 미적 가치(알맹이)는 찾기 어렵게 되므로 엄격한 의미에서 시라고 볼 수 없다 바로 理言詩라고 칭하는 편이 옳다 이같은 작품에 대해서 의미 있는 평가를 내리기 곤란하다 이에 비해서 理趣詩는 풍부한 형상성을 동원하여 음미할 만한 理趣를 담아낸 것으로 때에 따라 독자에게 흥건한 흥취를 불러일으켜 준다 이취시는 도학의 理致를 표현한 것과 도학의 意趣를 표현한 것으로 나누어 볼 수 있다 두 경우 모두 理語를 드러나게 사용하지 않는다는 공통점이 있다 그러나 전자는 비교적 쉽게 시의 의경이 理學的 의미를 지향하고 있음을 알 수 있는 相關物이 엿보이지만 후자는 거의 이학적 상관물이 배제되어 있어 보다 정밀한 감상을 거쳐 작품전체가 풍기는 분위기를 感受한 뒤라야 그 의경을 간파해 낼 수 있다 퇴계 이취시는 比·興 수사법을 즐겨 동원한다 비흥은 이취시를 예술의 자리에 서게 하는 매우 중요한 요소이다 비와 흥은 크게 보면 隱喩에 속한다 대립 혹은 연결되는 두 가지 의상(詩語나 詩句)사이에서 주된 意象에 대해 보조된 의상이 強調·對比·類比의 작용을 하면 比이고 興起 작용을 하면 興이다 比는 의상 사이의 관계를 어느 정도 알아낼 수 있지만, 興은 고도의 은유로 독자가 풍부한 연상작용을 동원하지 않으면 상호관계의 단서를 찾기 어렵다 반면에 흥은 비에 비해 독자에게 심원한 예술적 감동을 끼친다 이취시에서 理致를 표현할 경우에는 比가, 意趣를 표현할 때는 興이 종종 동원된다 퇴계는 以理入詩의 방식으로 다수의 한시를 창작하였을 뿐 아니라 도학적 의리로 써 시를 논하는(以理論詩) 방식도 즐겼다 그가 詩人趣味보다는 學問意思에 중점을 두고 상대의 시를 평가한 것이 그 좋은 예이다 그 주된 활동은 시를 통해 상대의 마음상태를 측량하여 학문이나 수양의 정도를 저울질하는(以詩衡心) 일이다 이렇듯 퇴계는 도학적 의리와 시학적 원리를 일치(理詩一致)시켜 시를 창작하고

평가하였던 것이다

퇴계는 시가를 창작하여 자신의 審美理想에 맞지 않는 의경이나 풍격을 멀리하고 새로운 의경을 개척하여 개성을 갖춘 풍격을 구현해 낸 것으로 보인다 이는 그가 손수 창작한 도산십이곡과 만년에 주로 지어진 영매시를 통해 검증해 낼 수 있다 또한 우리는 이같은 작품에서 퇴계의 심미이상이 천인합일을 지향하고 있음을 확인하게 된다 천인합일은 인간과 자연의 만남으로 主客構圖의 산물이다 주관과 객관 사이의 관계를 통해 성립하는 시의 미적 경계를 표현하는 말 중에 '유아지경'과 '무아지경'이 있다 有我之境은 자기 위주로 사물을 보기에 物我에 모두 나의 색채가 묻어난다 無我之境은 사물의 입장에서 사물을 보기에 주객이 渾融되어 있어 피차의 구별이 어렵다 그런데 과연 무아지경이 존재하는가? 유아지경은 超物之境으로 物景에 시인의 개성을 붙인 것이라면, 무아지경은 同物之境으로 시인의 주관적 정취가 소멸된 것이 아니고 물경 속에 녹아 들어 그 일부분이 되어 物我一體의 경지에서 잠시 자아의식이 정지되는 상태에 지나지 않는다 퇴계의 시에서 이른바 마음이 영기고 정신이 풀려나서 온갖 자연조화와 남몰래 합쳐지는 (心凝神釋, 與萬化冥合) 天人合一의 경계는 몰아일체의 그것이다 다만 퇴계의 미의식이 일반 문인들의 그것과 다른 점은 '합일'의 계기가 의도적이어서는 안되고 심미주체의 심리상태가 '無欲自得'해야 한다는 것이다

퇴계 시에서 특히 '梅花'를 소재로 한 작품은 주목할 만하다 景이 情을 따라 생겨나거나(情隨景生) 정이 옮겨져 경으로 들어가는(移情入景) 두 가지 교용방식이 끝내는 '내가 매화인지 매화가 나인지를 알지 못하는 상태'로까지 나아간다 이는 매화의 天과 나의 天을 契合시킨 결과이다 天은 사물의 본질속성(本性)이다 그렇다고 나와 매화가 물리적으로 완전히 하나의 개체로 변화되었다는 것을 뜻하지 않는다 다만 시인이 매화의 본질속성 가운데에서 가장 優越한 측면을 궁리와 직관을 통해 찾아내어 시인이 회구하는 나의 이상적인 본질속성으로 轉移하거나 나의 이상적인 본질속성을 매화의 가장 우월한 본질 속성에 投射시킨 것일 따름이다 매화는 自然物이다 天地人 三才의 하나로서 인간은 자연에 참여한다 자연은 작위적인 노력없이도 생래적으로 주어진 天을 따라 그 본질속성을 어김이 없이 그대로 드러낸다 物自體가 곧 天이다 이것이 바로 '天命之謂性이요 率性之謂道'이다 그러나 成道하지 못한 인간은 주어진 본질속성에 따라 온전히 保持해나가기 어렵다 그래서 길(道)아닌 길을 가지 않기 위해 부단히 자기의 마음자리를 보살핀다(省察) 이것이 비로 '修道之爲教'이다 따라서 도학은 率性하는 학문이다 퇴계는 바로 이 教=>修道=>率性하기 위한 방편으로 시를 지었고 그같은 노력의 완수를 확인하는 자리로 天人合一의 體認을 설정하였다 천인합일의 체득을 논리적인 문자를 통해서 확인하고 설명하는데는 일정한 한계가 있다 퇴계는 후진제자들과 시로써 수창하기를 즐겼다 그의 시작의 대부분이 화운시와 차운시로 이루진

것을 보더라도 이를 쉽게 미루어 짐작할 수 있다 모든 수창시에 해당하는 것은 아니지만 퇴계 수창시의 상당부분은 수창에 임하는 상대의 性情樣態를 읽어내어 修道의 正황을 간파하려는 方便으로 활용하고 있다

매화와 정감을 교류하는 단계에서 표현된 시가들은 퇴계의 사유활동이 窮理의 차원을 거쳐 神遊의 차원으로 나아간 결과이다 퇴계는 매화와 神交를 맺은 것이다 物我交融에 도취할 줄 알아 매화에서 '寒傷歎'와 같은 참신한 意象을 찾아내고 問答形式을 운용함으로써 새로운 意境을 창조해 내었다는 관점에서 보면, 퇴계는 참다운 예술가의 정신을 지니고 있다 시가에서는 格律과 用事, 造句 등을 통해 이루어진, 일상어와는 다른 언어를 사용한다 의경은 객관적인 景物과 주관적인 情意가 交融되어 형성된 미적 경계이다 의상이란 물경의 상이 정의의 상으로 옮겨져 생성된다 즉 물경의 형상에 작자의 미의식을 불어넣어 만들어진 것이 의상이다 예컨대, 梅花라는 형상으로부터 작자가 靑眞한 느낌을 받았을 때, 靑眞이 곧 매화의 의상이 되는데, 이같은 의상이 반복적으로 사용되어 굳어지면 마침내 고정된 의상을 지닌 시어로서의 시가왕국의 시민권을 획득하게 된다 객관景物과 주관정의는 納말(詞)로 조성된 意象들로부터 생성된다 그러므로 시에 동원된 納말을 분석해 보면 詩語의 意象을 알 수 있고, 표현된 의상을 분석해 들어가면 詩篇의 意境을 터득할 수 있으며, 각 시편의 의경을 분석하여 총체적으로 검토해 보면 작품의 風格을 알아내어 작자의 人格까지 유추할 수 있다 시가언어는 숨췌음을 중시하여 풍부한 의상을 만들어 낸다 퇴계는 매화로부터 다양한 의상을 찾아내어 표현하였다 퇴계는 시가언어에서만 느낄 수 있는 象徵과 情韻이 담긴 시어를 즐겨 사용하였을 뿐 아니라 쉽게 속뜻을 간파할 수 없게 하는 심층적인 의미와 言外의 의미를 함축한 시어도 적지 않게 사용하였다 때문에 시학에 정통하지 않은 사람으로서는 詩意를 제대로 파악하기 힘들다 이는 역으로 그 만큼 퇴계가 시학 공부에 상당한 시간과 정열을 쏟았다는 사실을 반증해준다 의경이 지극히 시원하고 맑은 경지(靑淨灑落)를 표현한 작품은 天真·自然하여 神助가 있는 듯한 느낌마저 들게 한다 이같은 경지를 표현하기가 쉬운 듯하지만 실상 그렇지 않다 오랜 생활경험의 축적과 심각한 자기성찰(내성공부), 그리고 사물에 대한 투철한 觀照와 부단히 鎔鑄鍛鍊(煉字·煉句·煉意)하는 고도의 예술적 수양 없이 하루 아침에 이를 수 없다 퇴계는 溫柔敦厚한 태도를 가지고 객관景物과 주관정의가 적절하게 교유된(娛意適情) 靑淨(靑眞)灑落한 의경을 만들어 내어 莊重簡淡한 풍격을 형성하였다 따라서 비홍수사를 통한 함축미의 提高를 촉진하는 은유돈후는 퇴계시의 풍격형성을 지도하는 원리로 작용하여 그의 인격미를 조성해 주었다 중년의 시가 청정쇄락한 세계를 희구하고 동경하는 의경을 보여주었다면 만년에 창작한 시는 청정쇄락한 세계의 성취로부터 오는 超越이 주된 의경이다 이러한 의경으로부터 우리는 세속의 명리나 정신적 고뇌로부터 밝고 맑은 새로운 세계로 훌

쩍 뛰어 들어가는 듯한 초월감을 느낄 수 있다 이러한 퇴계 시의 의경은 그의 고상한 인격과 삶에 대한 심오한 이해 그리고 뛰어난 예술적 표현력으로부터 우리나라의 것으로 우리 시대의 문예가 고민해야 할 화두이기도 한 것이다

7

이제 필자 스스로를 향해 회초리를 들어야 할 시점에 왔다 그것은 바로 퇴계 문학을 전문적으로 연구하는 학자가 드물다는 데에서 연유한다 퇴계문학에 대해 한 두 편의 논문을 발표한 연구자는 많지만 장기간에 걸쳐 探討를 거듭해온 전문가는 손으로 꼽을 정도다 그렇게 만든 주범은 연구에 주력할 수 없게 하는 취약한 대학구조와 소재주의와 한탕주의를 만연케 한 작금의 학문풍토일 것이다 그 결과 극단적으로 말하면, 교수는 있어도 학자는 없게 되었다 전문학자의 부족은 필경 연구의 총체적 낙후성을 불러올 수밖에 없다 낙후성을 초래한 책임은 연구자에게도 있다 낙후성은 모든 것을 다 말해야 직성이 풀리고 거대한 문제를 담론해야 속이 차는 체질에서 다분히 연유한다 이미 모든 것과 중요한 것을 다 말했으니 다시 또 연구할 필요와 흥취를 느낄 수 없음은 당연하다 전문학자는 그렇지 않다 그는 작품 하나 혹은 구절 하나에서 문제를 제기하고 수십년 동안 궁리를 거듭하고 생각을 정련한다 그는 오랜 기간의 수고에 대해 타인의 인정이나 보상을 바라지 않고, 부끄럽지 않은 짙막한 논문 하나를 써내는 것으로 만족할 줄 안다 그런 학자는 해박함을 소홀히 하지 않으면서 그에 못지 않은 정밀성을 강구해내는 데 이력이 난 사람이다 주지하듯이 퇴계는 주자의 「武夷權歌」 第九曲 1수에 형성된 의경을 어떻게 이해하는 것이 좋을까 하는 문제를 가지고 확호한 주견이 생길 때까지 20여년 동안 잊지 않고 궁리를 거듭하는 자세를 보여 주었다 퇴계는 진정한 의미에서 프로의 길을 걸어 간 분이다 예던 길을 버리고 셋길로 가기에 익숙해진 우리의 모습이 너무도 부끄러워지는 오늘이다 퇴계에게서 취할 점은 다른 것이 아니다 바로 이같은 그의 철저한 학문정신이다 전문가는 일조일석에 탄생되는 것이 아니다 오랜 기다림을 거쳐 만들어지는 것이다 퇴계학계가 머지 않은 장래에 촉망받는 전문가들의 요람이 되기를 기대한다 杞憂에 그치기를 바라면서, 덧붙이고 싶은 게 있다 그것은 지도적 연구인력의 지역편중 현상에 관한 것이다 일일이 거명하지 않아도 알 수 있듯이, 초창기부터 퇴계 문학연구를 주도해오고 있는 학자들의 대부분이 대구와 경북지방 출신들이다 이 지역이 퇴계학의 본향이라는 점에 비추어 볼 때, 이같은 현상은 사태발전의 필연적 결과이다 이 고장 출신들이 지역의 현장성을 살려 타지역보다 훨씬 효과적으로 퇴계학을 연구할 수 있다는 사실에 동의한다 단지 세간의 인식이 퇴계학은 그 지역 사람들

이 주로 학문이라고 생각하게 될까 걱정이다 벌써 20여년 전부터 퇴계학 연구원에서는 '한국의 퇴계에서 세계의 퇴계로'라는 구호를 외치고 10여 차례 이상 국제학술회의를 개최해온 바 있다 지속되는 이러한 노력에 비추어 국내 연구인력의 편중현상은 뭔가 개운치 않다 필자의 淺見으로는 21세기 '新退溪學'과 '新退溪學風'의 전도를 보장하는 것은 무엇보다도 퇴계 당대와 같이 전국에서 인재가 고루 참여하여 그 생기발랄함을 유지해 나가는 일이라고 믿는다 어떻게 해야 편중현상을 해소하고 전국적인 규모의 연구인력을 확충하며 믿음직한 전문가를 길러낼 수 있는지는 앞으로 퇴계학계가 풀어야 할 숙제로 남긴다